

다수결 횡포로 ‘법치 붕괴’ 절대 안 돼

특별기고 ‘제헌절 맞아 대한민국 헌법 안녕한가요’



김 현

법무법인 세창 대표변호사
(전 대한변협 회장)

7월 17일 제78회 제헌절을 맞이하며 대한민국 헌법의 현재를 되짚어 본다. 1948년 제정된 이래 우리 헌법은 격동의 현대사를 거치며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탱하는 든든한 초석이 되어왔다. 헌법은 국가 권력을 제한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최고 규범으로서, 사회적 합의의 상징이자 우리가 지향해야 할 공동체의 나침반이다. 그러나 헌법 정신을 기리는 오늘, 우리 사법 현장과 입법 환경을 둘러싼 일련의 흐름을 보며 과연 헌법이 그 본연의 권위를 온전히 존중받고 있는지 질문하지 않을 수 없다.

최근 우리 사법체계를 둘러싸고 논의되는 입법적 움직임들은 법치주의의 미래에 관한 진지한 숙고를 요구하고 있다. 특히 ‘법 왜곡죄’를 도입한 것은 사법의 독립성이라는 헌법적 가치와 상반되므로 크게 잘못된 일이다.

‘법 왜곡죄’는 판사가 법률을 의도적으로 왜곡하여 부당한 판결을 내릴 경우 형사 처벌하겠다는 것을 골자로 하는 내용이다. 법관의 재판은 오

직 헌법과 법률에 근거해야 하며, 그 해석의 자율성은 사법 독립의 핵심이다. 결과에 대한 평가를 넘어 법적 판단 그 자체에 형사적 책임을 묻는 체계는 사법부의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

사법부가 정치적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로울 때 비로소 헌법적 가치가 보호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러한 제도 도입은 잘못된 일이며

조만간 법왜곡죄가 폐지되기를 희망한다.

아울러 사법체계의 급격한 개편 논의 역시 삼권분립의 균형이라는 관점에서 살펴봐야 한다. 법원 조직법, 법원 설치법, 법관법 등을 개정하여 대법관을 24명으로 갑자기 증원하고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대법관을 22명이나 임명할 수 있게 하는 것은 한 정권이 지나치게 오랜 기간 사법권을 장악하게 하므로 매우 위험하다. 대법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 입구에 설치된 조형물. 정의의 여신상이 법원을 내려다 보는 듯 하다.

작동하는 헌법의 대원칙이다. 사법 체계의 변화는 단기적인 편의성보다는 사법적 안정성과 신뢰 제고를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

최근 양식 있는 지식인들은 현재의 사법 개악에서 ‘다수결의 원리’가 ‘법치주의’를 압도하는 것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있다. 헌법적 가치는 시대의 변곡점마다 다수결로 결정되는 성질의 것이 아니며, 다수결의 원칙을 절대화하여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고 사법부의 기능을 형해화하는 행태를 멈춰야 한다는 지적이다. 정치권이 이러한 목소리를 법치주의 성숙의

중에서도 가장 근본적인 것이기에, 이를 관리하는 선관위의 행정은 한 치의 빈틈도 없어야 한다. 국가의 관리 소홀로 인해 국민이 투표 과정에서 불편을 겪거나 기본권 행사에 제약을 받는다면, 이는 단순히 행정적 과오를 넘어 헌법적 책임을 방기한 것으로 비칠 수 있다. 나아가 부정선거의 의혹이 여러 곳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의혹의 철저한 규명과 책임자의 엄벌이 꼭 필요하다. 부정선거의 운상이 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는 사전투표는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제헌절은 단순히 국경일이 아니다. 우리 사회가 헌법정신을 얼마나 잘 지키고 있는지, 그 가치를 실현하고 있는지 자문하는 성찰의 날이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헌법의 정신을 정치적 도구로 활용하려는 유혹과, 헌법의 본질을 지키려는 법치주의적 이상 사이에서 위태로운 줄타기를 하고 있다. 사법부의 독립성을 존중하고, 삼권분립의 취지를 되새기며, 국민의 참정권과 같은 기본권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 제헌절에 확인해야 할 약속이다.

정치권은 헌법을 정파적 갈등의 도구로 삼는 대신, 헌법정신을 사회적 화합의 기반으로 삼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사법 체계의 근간을 바꾸는 거대한 변화에 앞서 그 변화가 헌법의 안정성을 해치지 않는지, 국민

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방향인지 다시 한번 검토해야 한다. 국가기관 역시 기본권 보장이 라는 헌법적 책무를 수행함에 있어 낮은 자세로 국민

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대한민국이 진정한 법치국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헌법을 존중하고, 법의 지배를 받는 겸허한 사회가 되어야 한다. 헌법이 우리 사회의 현재와 미래를 이끄는 생생한 규범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각성이 절실하다. 78번째 맞는 제헌절이 헌법가치의 회복을 위한 새로운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

‘법 왜곡죄’ 도입은 ‘삼권분립’ 헌법 가치 훼손 ‘민주주의 꽃’ 참정권 침해는 엄하게 처벌해야

관 증원 문제나 헌법재판소가 대법원 판결을 직접 심사할 수 있도록 하려는 시도들은 겉으로는 사법의 효율성과 민주적 통제를 내세우지만, 본질적으로는 삼권분립의 원칙을 허물고 헌법적 질서를 사법적 혼란 속에 빠뜨린다. 대법원의 판결은 사법 최종심으로서 그 권위가 존중되어야 한다. 삼권분립은 서로 다른 권력이 견제와 균형을 통해 상호 보완할 때 비로소

자양분으로 삼아주기를 기대하는 국민의 바람이 적지 않다.

또한, 민주주의의 꽃이라 할 수 있는 참정권 보호와 관련하여 부실한 선거 관리 기관의 역할을 바로 잡아야 한다. 최근 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일련의 논란들은 국민의 소중한 기본권을 보호하는 국가기관의 책무가 얼마나 막중한지를 다시금 일깨워 주었다. 참정권은 헌법이 보장한 권리

6·3지방선거는 ‘신의 한수’

민심 돌풍 ‘오만한 권력’ 심판



김 화
본회 이사 · 편집위원
전 경향신문 편집위원

6·3 지방선거의 민심은 ‘신의 한 수’처럼 절묘했다. 그 동안 국민의 민주주의 의식 마비증을 안타까워 했는데 6·3 지방선거에서 잠자는 민주주의식이 깨어났다.

이번 지방선거 민심은 절대 권력의 오만과 일방적 폭주에 심판·경고와 견제·균형으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압도적인 승리와 야당인 국민의힘의 궤멸에 가까운 패배라는 예상을 뒤집고 대통령과 민주당에 경고와 제동을, 국힘에겐 쇄신을 주문하면서 보수 재건의 불씨를 살렸다. 민심은 공정한 심판처럼 여야 어느 편도 손을 들어 주지 않았다.

이번 선거 결과의 본질을 정치 심리적으로 분석해보면 이재명 대통령에게 ‘경고’를, 정청래 민주당 대표에게 ‘제동’을,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에게는 ‘퇴진’을 요구했다.

유권자들은 민주당 정권의 독선과 폭주, 궤멸직전의 국민의힘을 보고 한국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냉정한 투표로 정치적 메시지를 표심으로 분출했다. 오랜만에 국민의 균형적인 정치 감각과 현실을 파악하는 냉철한 시각과 지혜로운 판단이 집단지성으로 경이롭게 빛을 발했다. 국힘의 무능을 질타하면서도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의 폭주에 제동을 걸었다.

지난 4월 말까지만 해도 민주당은 16개 광역단체장 선거에서 경북을 제외한 15곳에서, 14곳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는 대구 달성 을을 제외한 13곳에서 압승이 예상됐다.

이 대통령의 지지율은 65%로 높았고, 민주당도 46%로 국힘 18%의 두 배였다. 더욱이 국힘은 막장공천으로 난파선에 비유됐다. 그러나 선거결

과는 광역단체장은 민주당 12, 국힘 4였다. 국회의원 재·보선도 민주당 9, 국힘 4였다. 특히 정치적 상징성이 큰 서울시장엔 이 대통령의 ‘명픽’이라는 정원오가 패배, 오세훈에게 선거사상 처음인 5선을 안겼다. 또 부산 북 갑 국회의원 보선에서 이 대통령 키드인 하정우가 연고가 없는 보수 무소속인 한동훈에게 패배했다.

성남시장도 이 대통령 측근인 민주당 후보가 국힘 시장에게 패배했다. 관심을 모았던 경기 평택 을에선 국힘 유의동이 민주당 후보와 조국을 제치고 당선됐다.

민주당은 수적으로 승리했지만 심리적으로는 이긴 것 같지 않은 선거였다. 반면 국힘은 수적으로 열세지만 진 것 같지 않은 선거로 궤멸직전에

‘썩쓸이’하나?” 시평 끝부분에서 “지금 민주당 정권 지지율이 높다해도 권력의 오만과 폭주가 절제를 잃으면 민심은 반드시 권력을 심판한다. 이것이 민주주의 역사다”라고 썼는데 적중했다.

지방선거는 주민공동체의 일꾼을 선출하는 것이다. 따라서 중앙정치 이슈보다 지역발전과 민생에 대한 정책이 핵심주제다. 그러나 이번 선거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겹친 탓인지 중앙정치 이슈인 민주당의 ‘내란심판’과 국힘의 ‘정권심판’ 여의도 정치논쟁이 더 활발했다. 지방행정에 과도한 중앙정치 개입이다.

이번 지방선거의 두 번째 특징은 일부 지역에선 후보보다 현·전 대통령이 더 주목을 받았다. 이재명 대통령



“국정 기조 바꿔라” 경고

“독선과 폭주 안돼” 제동

“張퇴진 무능 질타” 혁신

서 보수 재건의 발판을 마련했다. 민주당은 전쟁에서 이기고 전투에서 진 셈이다. 민주당이 지방선거에서 수적 우세에도 승리하지 못했다는 평가는 선거직후 지지도가 증명해주고 있다. 6월 15일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은 이재명 정권 출범 이후 처음으로 국힘에 뒤졌다. 국힘 44.3%, 민주당 38%로 오차범위 밖으로 밀렸다. 다음날 발표된 이재명 대통령 지지도도 65%에서 47%로 급락했다.

이 대통령의 국정평가도 오차범위 안이지만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보다 높았다. 불과 한 달 사이에 민심이 민주당 정권에 등을 돌렸다. 국힘이 잘 해서라기보다 민주당의 자살골이다. 민심은 계절풍이 아니라 돌풍이요, 회오리바람이다. 국힘에게도 언제 회오리바람이 닥칠지 모른다. 필자는 대한언론 5월호 “6·3지방선거 민주당

은 부산, 울산, 김해 등 시장에서 시민들을 만났고 SNS에 “국정발목 잡는 반대세력을 심판해야 한다”는 글을 올렸고 사전투표에서 투표지를 공개해 비밀투표 의혹을 사면서 국힘으로부터 ‘노골적인 선거개입’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대구, 부산, 강원도를 방문해 국민의힘 후보를 지지하는 행보를 보였다. 이명박 전 대통령도 부산에 내려가 국힘 박형준 후보를 지원했다. 민주당은 ‘퇴행정치’라고 비판했고 정청래 당대표는 ‘내란세력의 준동’이라고 비난했다.

세 번째는 서울 등 일부 지역에서 국힘 후보자는 장동혁 대표 등 지도부의 유세지원을 거부하고 빨간 점퍼 대신 흰 점퍼를 입고 독자적으로 선거를 치렀다. 중앙당과 철저히 거리를 두고 개인기로 초반의 열세를 극



복하고 드라마틱하게 서울시장 5선에 성공한 오세훈은 단숨에 국힘의 대통령 후보 원 톱으로 부상했다. 네 번째는 기대를 모았던 군소정당의 약진은 실망으로 마감했다. 조국은 당대표이지만 3등으로 낙선했고 당 대표까지 사퇴해 추락했다. 이준석의 개혁신당도 자신의 지역구에서 시의원 단 한 명 당선에 그쳤다. 군소정당은 양대 정당 사이에서 존재감을 찾기가 어려운 선거였다.

6·3지방선거 과정에서 정책 제시나 후보자의 능력은 부각되지 않고 민주당·국힘 양당의 중앙당 선거프레임에 함몰됐다. 모든 선거가 그렇지만 특히 지방선거는 주민공동체의 일꾼을 선택하는 것이 정치심판을 재판을 뽑는 것이 아니다. 지방선거가 정치이슈에만 매달리면 지역 주민의 민생행보는 한 걸음도 나갈 수 없다.

이번 지방선거의 민심을 한 마디로 압축하면 이 대통령에게 국정기조를 바꾸라는 것이다.㉠



與, 밥그릇 아귀다툼...국민은 봉?

차기대권 길목서 당대표 놓고 '친명-친淸' 혈투



서옥식
본회 부회장
전 연합뉴스 편집국장

우리 정치권은 6·3 지방선거라는 거대한 폭풍이 지나간 지금, 여야를 막론하고 차기 권력 지형을 선점하기 위한 극심한 내홍에 휩싸여 있다. 특히 8월 17일의 전당대회를 앞두고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벌어지는 당·청 간의 긴장과 지지층의 극단적 분열 양상은 단순한 노선 갈등을 넘어 2028년 총선 공천권과 차기 대선후보 선출 구도 등 정국 주도권을 둘러싼 격렬한 권력투쟁의 성격을 띠고 있다. 정청래 대표가 당원 표심을 앞세운 '1인 1표제'를 띄우며 연임 행보에 나선 가운데, 명심(明心·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을 앞세운 김민석 총리측은 '6·3선거 패배 책임론'을 고리로 정 대표의 연임 포기를 압박까지 하고 있다.

양측의 갈등은 이 대통령의 "원수처럼 싸워선 안 된다. 전쟁해서 되겠나"(유럽 순방 결과를 설명한 6월 19일자 언론 브리핑)라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당내외에 들불처럼 번지고 있다. 친(親)이재명 지지층에서 친문재인·정청래 인사들을 공격하기 위해 '문조털래유' [문재인·조국·김여준(털보, 뉴스공장)·정청래·유시민] 라는 멸칭(蔑稱)을, 반대로 친문·친청 지지층에서는 '한강새똥돼주길' [한준호·강득구·김민석(김민새)·이동형(이똥형, 친명 유튜브)·김용민(돼지, 나꼼수)·이언주·송영길] 이라는 멸칭을 만들어 상대측 인사들을 공격하고 있다. 김민석 총리를 김민새로 멸칭하는 것

은 그가 2002년 민주당의 노무현 후보를 배신하고 '국민승리 21'의 정몽준 후보를 따라간 '철새'라는 뜻에서 붙여진 것이다. '문조털래유'는 '매불쇼'까지 포함시켜 '문조털불래유'로 부르기도 한다.

국민의힘 사정도 복잡하긴 마찬가지다. 당 내부에선 전체적인 선거 패배에 대한 지도부 책임론과 함께, 서울 등의 핵심 승부처에서 깃발을 꽂으며 기대 이상의 성적을 냈다는 평가가 동시에 맞물리고 있다. 장동혁



정청래

인 대권 주자'로 발돋움할 수도 있고 '정권의 든든한 방패막이'에 그칠 수도 있다. 현재 당권파인 친청계는 당의 독자성을 강화해 향후 총선 공천권 행사와 차기 대권 구도에서 우위를 점하려 하고 있고, 비당권파인 친명계는 청와대를 중심으로 일사불란한 당정 일체 체제를 구축해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 동력을 뒷받침하면서 역시 친명 중심의 정권 재창출을 도모하려 하고 있다. 결국 이런 투쟁은 차기 대권으로 가는 길목에서 '누가 마이크와 칼자



김민석

공은 아니라고 한다.

이 대통령은 6월 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6·3 지방선거 결과를 언급하는 가운데 차기 당권 도전에 나서는 김 총리에겐 '역할론'을, 당권 연임에 나선 정 대표에겐 '책임론'을 강조했다. 그는 김 총리에 대해서 "다른 역할을 맡는게 적절해서 교체했다"고 했다. 정 대표에 대해서는 이름을 언급하지 않았으나 6·3선거에서 "이길 곳을 졌다. 이겨야 하는 곳을 졌다고 하면 문제가 다르다. 최소한 성공은 아니다"라며 사실상 정 대표 책임론을 부각시켰다. 정치권에서는 '명픽'(이 대통령에 의한 선택)한 정원오 서울시장 후보, 하정우 부산 북갑 의원후보, 김용남 평택을 의원후보가 모두 낙선한 것을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했다. 유럽 순방 중에도 정 대표를 겨냥한 듯 SNS에 "여당은 '신념의 언어'보다 '책임의 언어'에 더 집중해야 한다"는 글도 올렸다. 순방 출국 행사에 정 대표는 오지 말라는 지시까지 했다. 대신 그 자리에 당권 도전에 나선 김 총리를 불렀다. 이는 당심의 기반을 정 대표보다는 비교적 온건하고 정무적 감각이 뛰어나다는 평을 받는 김 총리를 차기 당 대표 대안으로 염두에 두고 정 대표의 연임에 제동을 걸고 있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하지만 정대표의 연임을 향한 반격은 이미 시작됐다. 그는 지난 6월 1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통령의 6·8 기자회견을 겨냥한 듯 "민심이 천심이고, 국민이 곧 하늘이다. 국민을 이기는 정권은 없다. 국민은 영원하고 정권은 짧다"는 발언으로 맞받아치며, 당원 중심의 독자적 공간을 구축하고 나섰다.

〈6면에 계속〉

鄭 연임 성공하면 대통령 레임덕 조기 가시화 정치권, 국민들 경제난 해결엔 관심없어 눈총

대표가 정면 돌파에 나설 명분은 확보했다는 평가가 나오지만, 무소속으로 당선된 한동훈 전 대표의 복당 문제를 놓고 계파간 갈등이 다시 분출되고 있는 상황이다.

8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벌이는 민주당 당권 투쟁의 표면적인 명분은 "지방선거 평가와 당의 진로 설정 및 이 대통령 국정수행 동력 지원"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그 이면에 숨겨진 궁극적인 목표는 2028년 치러질 제 23대 총선의 '공천권'과 임기 2년차에 들어선 이재명 정부 중·후반기의 '당 주도권' 선점이다. 차기 당 대표는 2028년 4월 총선 공천권을 행사하게 된다.

대통령제 국가에서 집권당 대표는 대통령과의 관계 설정에 따라 '독자적

루를 쥐느냐'를 결정하는 생존 경쟁인 셈이다.

이 대통령과 정 대표간의 '악연'이랄까 긴장 관계는 정 대표가 2018년 6·13 지방선거에서 경기지사로서 이 후보 대신 전해철 후보를 지지한 것, 2025년 8월 2일 당대표 선거에서 명심의 박찬대 후보를 압도적인 표차로 이기면서 깊어지기 시작했다. 이런 양측의 긴장 관계는 이번 지방선거 결과에 대한 해석 차이에서 다시한번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광역단체장 16개 중 12개, 기초단체장 119개를 확보하며 수적(數的)으로 압승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대통령 측은 수도 서울시장 탈환 실패와 대구·경북·경남 등 영남권에서의 패배를 지적하며 최소한 성

선관위, 무책임 무능력 부도덕 총체적 부실

참정권 침해 “이제 나라냐”

‘하인리히 법칙’(heinrich’s law)은 어떤 대형사고가 발생하기 전에는 같은 원인으로 수 십차례 경미한 사고와 수 백번의 징후가 반드시 나타남을 뜻하는 통계의 법칙이다. ‘재해 연속성 이론’이라고 한다. 1963년 1월 헌법상 독립기관으로 창설된 선거관리위원회는 1987년 민주화 개헌으로 선관위의 독립성과 권한을 더 강화했다. 선관위는 창립 이후 반세기가 넘게 독립적인 헌법기관임을 내세워 외부 감시나 견제없이 독단으로 운영하면서 수차례 여러 문제점을 드러냈다. 그런데도 안이하게 대처하는 무책임과 무능력, 도덕적 해이를 되풀이 하다가 6·3지방선거에서 ‘참정권 침해’라는 대형 사고를 쳤다. 후폭풍은 거셌다. 국민들의 분노는 폭발했고 특히 2030 젊은 세대들은 자발적으로 서울 송파구 개표소인 올림픽공원 잠실체육관 앞에 모여 ‘참정권 침해’ 규탄과 송파구 투표함을 지키기 위한 시위를 계속하고 있다. 대학생들의 시국선언까지 나왔다.

6·3지방선거에서 참정권 침해 원인인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서울 송파구를 비롯해 전국 91곳에서 발생했는데도 현황 파악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대처도 늦었다. 서울 송파구 잠실 투표소에선 용지 부족을 이룬 시간에 발견하고도 선관위는 우왕좌왕 누장을 부리는 바람에 오후 6시 출구조사가 발표된 이후에도 투표시간을 연장,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 투표를 포기하고 돌아가는 유권자도 있었다. 서울 송파구의 경우 무 번호 투표용지를 빼면 사실상 선거인 수의 50%에도 미치지 못하는 용지를 준비했다. 이곳은 국민의힘 강제지역이라 의심을 받고 있다. 선관위는 투표용지 예산을 110% 배정받고도 50% 기준으로 축소 시행했다.

투개표 과정의 난맥상은 또 있다. 충북 청주시 한 선거구에서 선거인명부에 1,295명이 누락, 누락된 유권자가 항의하자 그때서야 원부를 가져와 2개의 선거인명부를 작성한 의심을 받고 있다. 전북 교육감 투표에선 1,104표가 증발했다. 제1투표소 1,104표 입력 대신 제3투표소 994표를 잘못 입력해 1,104표가 증발한 것이다. 선관위 해명은 “당락에 영향이 없다”였다. 지난 대선 때도 다른 사람의 선거인 명부에 서명하고 투표한 사례가 2,000건이 넘었다. 사전투표 개표 과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규탄하며 재선거를 요구하는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출입구 앞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표 증발, 누락, 특혜 채용등 공정에 먹칠

2030 분노 시위…해체 수준서 개혁해야

정에서도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정황이 인천시장 선거에서 2곳, 광주 전남 광역단체장 선거에선 10곳이나 됐다. 지역이 다르고 유권자 수와 투표자 수가 다른데도 민주당 후보와 국힘 후보자의 득표수가 똑 같았다. 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다. 이 현상으로 수학적 확률논쟁이 벌어졌다.

선관위의 부실투개표 관리는 누적된 문제였다. 2022년 대선 때는 투표용지를 소쿠리에 담아 옮기고 이미 기표한 용지를 유권자에게 나눠줬다. 2024년 총선 때도 부실한 사전투표함 보관으로 논란이 일었다. ‘소쿠리 투

표’ ‘투표용지 반출’ ‘득표수 잘못 입력’ 등 누적된 선관위의 불신징조가 이번 ‘참정권 침해’로 국민 인내 임계점을 넘었다. 상황이 이런데도 선관위 정책실장은 투표용지 부족에 대해서는 “투표용지 부족이 아니라 분배실패”라고 했고, 개표요류에 대해서 “당락에 영향이 없다”고 했다. 중앙선관위 정책실장의 해명을 듣고 보니 직원 3,000명에 연간 예산으로 인건비 2,400억원을 포함해 5,000억원을 쓰는 방대한 헌법상 독립기관으로서 공명선거를 관리할 자격과 능력이 있는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선관위의 가장 큰 문제는 도덕적 해이다. 관리부실 뿐만 아니라 중앙선거관리위원장부터 말단 직원까지 무책임과 기강해이, 도덕 불감증이 심각하다. 이미 자정능력을 상실했다. 대법관인 노태약 선관위원장은 그동안 덴마크, 스웨덴 등 세 차례 해외출장에 배우자를 동반, 1억 원 가까운 경비를 썼다. 부인의 비즈니스석 항공티켓을 비롯, 일체의 경비를 선관위 예산으로 쓰고 사후 보고서엔 부인 동반을 족 뻘다. 위원장이 이러니 직원들의 해외출장은 불문가시다. 송파구 인구 65만 명보다 적은 신혼여행지로 알려진 인구 53만 명의 섬나라 몰디브 대통령선거 참관 7박9일 출장을 비롯, 말레이시아 코타카발나루, 방콕, 피렌체 등을 포함, 461명이 107회에 걸쳐 24억원을 썼다. 더 있다. 간부 자녀들의 특혜채용비리에도 참정권 침해로 온 나라가 난리인데 대구 선관위 6급 직원은 사무실에서 골프 연습까지 했다. 성과급도 100% 지급했다. 선거기간 중에도 휴가를 갔다. 독립성을 방패삼아 외부의 감시와 견제를 차단한 철옹성을 구축하고 비리와 도덕적 일탈을 저질러왔다.

선관위가 이 지경에 이르게 된 데에는 국회도 한몫했다. 국회의원들이 선거법 해석, 정치자금 집행, 선거과정 회계문제 등 선관위의 판단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선관위 눈치 보느라고 선관위 개혁에 물러나 있었다. 이제는 국회도 원 포인트 개헌을 해서라도 선관위 개혁의 칼을 뽑아야 한다. 선거관리의 총체적 부실과 바닥까지 떨어진 도덕적 해이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

선관위의 조직운영체계와 사전투표 문제 등 투개표 시스템을 해체수준에서 전면 재설계해야 한다. 득표를 엉뚱한 곳으로 입력하는 실수를 막기 위해 투개표와 득표집계시스템도 자동화해야 한다. 선관위의 독립성을 보장하되 책임과 도덕성을 높이고 외부의 감시기구도 제도적으로 규정해야 한다. 다행히도 2년 후 총선까지 선거가 없기에 지금이 적시다. 때를 놓치면 안 된다. 선관위의 개혁없이 공명선거 운운은 국민이 신뢰하지 않는다.

선관위가 더 이상 한국 민주주의의 장애물이 되어선 안 된다. ☞

김 화(보회 이사 · 편집위원 · 전 경향신문 편집위원)

대통령의 ‘언어 폭력’…국격 실추



이도선
본회 주필
전 연합뉴스 논설실장

대통령은 공직자 중 직급이 가장 높은 국가원수다. 특정 정파나 지역이 아니라 국가를 대표하고 국민 모두를 아우르는 나라의 어른이 대통령이다. 대통령의 말 한 마디 한 마디는 그만큼 절제되고 품위가 있어야 한다.

각계각층을 두루 살펴 모나지 않아야 하는 것도 물론이다. 일반 국민이나 여느 공직자처럼 말을 잘못했다고 해서 나무라기도 쉽지 않을뿐더러 국격을 실추시키고 나아가 국가적 손해까지 초래하기 십상이므로 국민으로서의 대통령의 언사에 각별히 신경 쓰지 않을 수 없다.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의 말은 험악하다. 단순히 ‘거친 말투’를 넘어 상대방에게 극도의 적개심을 드러내는 언사가 툭툭 튀어나온다. 편가르기가 심하고, 자기 진영이 아니면 악마화하는 것도 서슴지 않는다. 때로는 도저히 대통령의 말투라고 믿기 어려울 정도로 신중하지 못한 언행으로 논란을 일으키곤 한다. 이 정도면 언어폭력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취임사에서 “모든 국민을 아우르고 섬기는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약속했지만 실제로는 정반대다.

이 대통령은 6·3 지방선거 당일 “플라톤의 말대로 최악의 저질들에게 지배당하지 않기 위해 투표하셨나요?”라는 글을 SNS에 올렸다. 앞서 5월 말에도 “정치 무관심의 대가는 최악의 저질들에게 지배당하는 것”이라며 “주권자의 침묵과 투표 포기는 국민을 속이고 사익을 위해 권력을 남용하며 나와 가족의 삶을 망치는 자들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라고 했다.

얼핏 보면 투표 참여 독려 같지만 실은 유권자를 겁박하고 지지층 결집을 노린 노골적 선거 개입이다. 국민의힘은 “특정 세력을 ‘최악의 저질’로 규정하며 사실상 선거운동을 했다”고 비난하고 “이 대통령과 민주당의 정치야말로 최악의 저질”이라고 꼬집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3월 30일 제주한라대학교 한라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타운홀미팅 ‘제주의 마음을 듣다’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저질 막장 인두집” 등 적대감 극대화 힐난 망신 자초…정제된 말로 화합을

었다.

게다가 이 대통령이 인용한 것은 플라톤의 말도 아니고 해석도 틀렸다. 이 발언은 소크라테스가 플라톤의 형 글라우콘에게 한 것으로, “훌륭한 사람들이 정치 참여를 거부하면 받는 징벌의 하나는 이들이 자기보다 못한 자들에게 통치당하는 것”이 원문이다. 즉, 일반 국민이 아니라 능력과 자질이 뛰어난 철인들의 정치 참여를 촉구하는 내용이다. 지난번에는 이스라엘군이 아동을 학대했다는 가짜 동영상에 낚여 “유대인 학살과 다름없다”고 비난했다가 국제적 망신을 당하더니 이번에는 “대통령이 엉터리 인용으로 반대파 지지자들에게 도덕적 낙인을 찍으려 했다”는 힐난을 자초했다.

‘스타벅스 사태’ 때에도 이 대통령의 험악한 말투는 거칠 게 없었다. 스

타벅스가 자체 텀블러 시리즈의 하나인 탱크 텀블러 할인 행사를 마칩 5월 18일에 진행하면서 ‘탱크데이’로 명명한 게 사건의 발단이다. 스타벅스는 “5·18 민주화운동을 조롱했다”는 비난이 쏟아지자 즉각 사과문을 발표하고 행사를 중단했으며, 모회사인 신세계그룹은 스타벅스 코리아 사장 해임과 함께 정용진 회장이 2차례에 걸쳐 국민에게 사과했다. 이 대통령은 이에 대해 “저질 장사치” “비인간적 막장 행태” “인두집을 쓰고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 등의 무지막지한 용어로 맹폭했다.

이 대통령의 비난 이후 정부 각 부처와 공공기관 등이 공공연히 스타벅스 불매운동을 벌였다. 특정 기업 죽이기에 국가권력이 총동원된 형국이다. 스타벅스가 과연 5·18을 조롱할 생각이었는지도 의심스럽지만 마

케팅 문구 하나 잘못 썼다고 해당 기업은 물론 모그룹까지 싸잡아 때려잡는 공권력에 놀란 국민이 적지 않다. 지방선거 국면과 맞물리면서 ‘불순한 정치적 동기’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된 것도 그래서다. 결국 역풍을 맞아 ‘여당 압승’이란 당초 예상과는 달리 수도권 등에서 뼈아픈 패배를 맞은 원인의 하나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 대통령은 지난 3월 말 “제주 4·3 사건은 국가 폭력”이라며 “국가 범죄에 대해선 공소시효를 폐지해 나치 전범 처벌과 같이 영구적으로 책임지도록 반드시 만들어 놓겠다”고 으름장을 놔다. 그러나 아무리 대통령이라도 역사 왜곡은 안 된다. 4·3 사건은 5·10 총선거를 방해하려고 남로당원들이 일으킨 폭동이다. 무고하게 희생된 민간인들의 억울함은 풀어 줘야 하지만 정부의 진압 자체를 국가 폭력으로 모는 것은 무지 아니면 그릇된 이념의 소산이다. 나치까지 운운한 것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인하고 관련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심각한 언어폭력이다. 5월 초 국무회의에선 공무원들을 향해 “적당히 하면 뒤에서 비속시웃이라고 한다”며 비속어까지

써서 사람들을 아연하게 했다.

대통령답지 못한 험악한 말투가 주특기인 이 대통령이 유독 북한에는 꿀 먹은 벙어리다. 올해 현충일 추념사에서는 난데없이 친일파 타

령을 하면서도 막상 현충일 제정 배경인 6·25 전쟁이나 북한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었다. 지난해에도 그랬다. 이 대통령은 6·25 기념사에서 “처절한 비극”이나 “참화”라고만 했지 그 장본인인 북한에는 입도 뵙구 못했다. 6·25가 왜 발발했고 우리가 누구와 싸웠는지가 빠진 6·25 기념사는 속 빈 강정이다.

언어폭력을 마구 휘두르면서 정작 해야 할 말은 하지않는 대통령을 둔 나라의 앞날이 밝을 리 없다. 앞서 지적했듯이 무릇 대통령의 언사는 품위 있고 고상해야 한다. 언어폭력으로 가뜰이나 분열된 국론을 더 갈라쳐선 안 된다. 이 대통령의 임기는 4년 가까이 남았다. 부디 정제된 언어로 국격을 높이고 국민 화합을 꾀하는 ‘모두의 대통령’이 되길 소원한다. ☞

北 “핵전쟁” 으름장 南 ‘평화’카드 대응



문관현
본회 편집위원
연합뉴스 부장

북한이 노골적으로 핵보유국 지위를 행사하겠다고 선언하며 한반도 정세가 ‘핵전쟁 입구’로 향하고 있다고 위협해 우리 정부 대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7년 만에 북한을 방문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북한의 핵보유국 주장을 사실상 묵인했으며, 미국이 이란과 핵협상에 소극적으로 대응해 북한에 잘못된 시그널까지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북한은 6월 20일부터 사흘 간 김정은 국무위원장 사회로 진행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9기 제2차 전원회의 확대회의에서 “핵무력을 끊임없이 확대 강화하고 핵보유 지위국을 철저히 행사하겠다”면서 보다 방대하고 혁신적이며 고무적인 핵기술 계획을 속도감 있게 실행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특히 한국을 ‘가장 적대적인 국가’로 지목하면서 대남 적대시정책을 거듭 공식화했다. 북한은 남한에 대해 대립각을 세우면서 “미국과 한국은 지역 내 무력증강 및 현대화 책동을 날로 노골화하면서 한국의 핵잠수함 보유까지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북한을 겨냥한 군사훈련과 정탐행위를 수시로 감행하며 한반도 정세를 악화시키고 있다고 한·미



강원도 철원군 중부전선에서 육군 제6사단 청성부대 장병들이 철책을 점검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北, 中에 군대교류 첫 공개 언급…핵탄두 보유 60기 상향

동맹을 강도 높게 비난했다.

북한의 핵무력 강화 입장은 6월 8~9일 시진핑 주석의 방북을 계기로 한층 노골화 됐다. 김여정 노동당 총

무부장은 시진핑 주석 도착에 앞서 “핵보유국 지위는 절대 불퇴의 한계선”이라고 쐈기를 박았다.

앞서 미국과 중국이 지난달 정상회

담을 갖고 북한 비핵화라는 공동 목표를 재확인해 시진핑 주석의 방북을 계기로 북한 비핵화가 거론될 것으로 예상된 바 있다. 북한의 선제 조치로 인해 시진핑 주석은 방북 과정에서 한반도 비핵화 문제를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오히려 “외교, 범집행, 군대 등의 교류를 강화하자”며 북·중간 군사협력 강화를 내세웠다. 김정은 시대에 양국 간 군대교류를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한다. 이와 달리 시진핑 주석은 2019년 1차 방북 때 한반도 비핵화를 적극 강조한 바 있다.

1994년 제네바협상에 참여했던 조엘 S. 위트는 2019년 북·미 하노이회담이 ‘노딜’(No Deal)로 끝난 배경을 설명하며 “이제 미국의 북핵 저지 실패에 따른 파괴적 결과를 냉정하게 직시할 때”라고 조언했다. 북한이 과거와 완전히 다른 위치에 도달했기 때문에 비핵화도, 군비통제도 할 생각이 없다는 것이다.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는 북한이 보유한 핵탄두 수 추정치를 지난해 50기에서 올해 60기로 상향조정하는 등 국제무대에서 북한의 핵보유국 인정은 대세로 자리 잡았다.

한국전쟁 발발 76주년인 올해 한반도를 둘러싼 위기감이 갈수록 고조되고 있다.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에 맞서 ‘평화적 두 국가’ 카드를 내세운 우리 정부의 대응 능력에 전 세계의 이목이 쏠리는 이유다. [본문]

〈3면에 이어서〉

강력한 팬덤을 기반으로 한 ‘1인 1표제’등을 도입해 청와대의 입김으로부터 당을 독립시키려는 행보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현 시점에서 당권투쟁에서 승패를 단정하기는 매우 어렵지만, 구조적인 유리함은 정 대표에게 다소 기울어져 있는 형국이다. 민주당 전당대회 룰이 권리당원의 표심을 대거 반영하는 구조로 짜여 있고, 정 대표는 이른바 ‘개딸’을 비롯한 강성 당원 팬덤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김 총리의 반격 카드도 만만치 않다. 대통령의 전폭적인 신뢰와 청와

대 조직력, 그리고 선거 패배 책임론에 공감하는 호남 지역의 조직 표가 결집한다면 반전의 기회는 있다. 여기에 송영길 전 당대표까지 합세할 경우, 김 총리의 당선 승률은 높아질 것이다. 결국 ‘당심(정청래)’이 승리하느냐, ‘명심(김민석)’이 승리하느냐는 남은 한 달여간 호남 민심의 흐름과 중도와 의원들의 합류 방향에 의해 결정될 것이다.

만약 8월 전당대회에서 정 대표가 연임에 성공한다면, 이는 이 대통령의 당 장악력에 대한 심각한 균열을 의미하므로 대통령의 레임덕이 조기 가시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여

당이 더 이상 청와대의 ‘하청기구’가 아닌 독자 노선을 걷게 됨으로써 이 대통령이 직면한 여러 사법적 리스크와 지지율 정체 국면에서 당원들이 등을 돌리거나 독자 목소리를 내기 시작할 것이고 야당의 공세까지 맞물리면서 정권의 조기 권력 누수 현상은 불을 보듯 명확해질 것이다.

하지만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려보면 정치권의 이러한 아귀다툼은 국민들에게 깊은 환멸을 안겨주고 있는 게 사실이다. 고물가와 급등하는 부동산 시세, 고환율과 고실업, 높은 세금 부담으로 서민들의 삶은 벼랑 끝에 몰려 있다. 게다가 수많은 시민들

이 6·3 지방선거의 공정성을 의심하며 선거무효와 재선거 실시, 사전투표 폐지와 수개표 도입을 외치고 있음에도, 여야 지도부는 이에 대한 진지한 제도적 보완이나 대책 마련보다는 오직 자기들만의 밥그릇 싸움에만 몰두하고 있다는 지탄을 받고 있다. 민심을 잃은 ‘그들만의 리그’ 당권투쟁은 모래 위에 쌓은 성과 같다. 여야를 막론하고 눈앞의 권력투쟁에서 승리한들 피폐해진 국민의 삶을 돌보지 않고, 현실로 드러난 ‘불공정 선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 정당은 결국 다음 선거에서 더 큰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본문]



“다주택자는 마귀에게 최소한의 양심을 빼앗긴 것은 아닌가. 높은 주거비용에 결혼 출산을 포기하는 수백만 청년의 피눈물은 안 보이나”

한성숙 새 총리 후보 ‘다주택자’ 쟁점



이향숙
본회 부회장
수필가

지난 6월 7일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새 국무총리 후보로 이재명 대통령이 한성숙 벤처기업인 출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지명했다.”고 발표했다.

청문회를 통과해서 임명이 되면 두 번째 여성 총리이자, 제50대 국무총리가 된다. 김민석 총리는 국회의원을 겸직하고 있는데 이미 사퇴 의사를 밝혔다. 그는 8월 말이나 9월 초 민주당의 당 대표에 도전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 총리 후보자는 이에 대한 후속 인사다

한성숙 장관이 누구이기에 장관 취임 1년 만에 국무총리로 초고속 승진을 할까. 그는 1967년 경기도 의정부 출신으로 59세의 미혼. 숙명여대 영어영문과를 졸업했다. 영부인 김혜경 여사와 과(科)는 다르지만 같은 대학 동기동창이다. 1989년 대학 졸업 후 IT 전문잡지 민컴 기자로 사회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나눔기술 홍보팀장, 엠파스 검색사업본부장에 이어 네이버의 전신인 NHN 검색품질센터 이사와 서비스1본부장을 지냈다. 그 후 네이버 서비스 총괄 부사장을 거쳐 2017년부터 5년간 사장을 역임하며 IT 업계의 경영자로 떠올랐다. 네이버 대표로 재직 중 인공지능(AI), 클라우드, 데이터센터 등 기술기반 성장을 주도하고, 웹툰, 웹소설 등 콘텐츠 확장에도 주력했다.

2022년 사장 퇴임 후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제13대 회장, 네이버 유럽사업개발대표, 네이버 고문을 거쳐 작년 7월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 취임했다. 이 중 가장 두드러진 업적이 네이버의 창업과 관련 될 것이다. 바닥에서부터 고군분투하며 네이버를 제1위의 인터넷으로 올려놓은 입지전적인 경영인으로 평가 받는다, 미국 포천지가 선정한 ‘세계에서 가장 영향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중소벤처기업부 장관)가 6월 22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연수원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최근 발생한 모두의 창업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연합뉴스 제공)

삼청동 단독주택외 역삼동 오피스텔
경기도 양평·양주 등 일대 토지 신고
美테슬라·애플 주식 등 250억대 재산
김혜경 여사와 숙명여대 동기동창생

력 있는 여성리더 50인’에 2017년부터 2020년까지 4년 연속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이재명 정부는 우리 미래산업의 핵심인 IT 관련 분야에서 추진력이 뛰어나고 경험이 풍부한 그를 발탁한 셈이다.

초대 여성 국무총리는 20년 전 김대중 대통령이 임명한 한명숙 전 총리다. 한명숙, 한성숙 두 사람이 이름도 비슷하다. 한명숙 전 총리는 큰 기대 속에 취임했지만 11개월 만에 정치자금으로 모 기업 대표에게서 9억 원을 받은 혐의로 사퇴하고 2년 징역형과 반환금 8억 9천 만원의 실형을 받았다.

한성숙 총리후보자는 작년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취임 때는 지명 한 달 후 청문회가 열렸고, 부동산 문제가 쟁점이 됐지만 보고서가 제출되자

곧 임명됐다. 이번에도 국회 청문회를 거치게 되는데 부동산 문제가 또 다시 쟁점이 될 듯하다.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는 6월 11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요청안에서 재산은 부동산 30억6,648만 원과, 예금 103억2,387만 원, 주식 20억 6,583만 원 등 250억882만3000원이라고 신고했다.

본인 명의 주택으로 서울 종로구 삼청동의 거주지 단독주택 221㎡ (67평) 15억 원과 경기도 양평군 양서면에 위치한 단독주택(6억3000만 원) 등 두 채를 신고했다. 경기도 양주시 광사동 소재 단독주택 지분 10분의 1(697만 원)도 신고했다. 지난해 재산 신고에 포함됐던 서울 송파구 잠실동 45평 아파트는 지난 5월 6일 매각했다. 약 30억원의 차익을 냈다.

주택 외 부동산으로는 서울 강남구 역삼동 16평 오피스텔(20억7463만 원), 서울 종로구 연건동의 상가빌딩 2건(22억9000만 원)과 경기도 양평·양주 일대 토지 등을 신고했다.

주식은 미국의 테슬라, 애플, 엔비디아, 팔란티어 테크놀로지 주식과 펀드를 소유하고 있다. 한국일보에 따르면 지난해 장관 지명 당시 제출한 재산 신고액은 김영삼 문민정부 취임 이래 가장 많은 금액이었는데 네이버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 평가액을 포함, 총 440억여 원이었다.

그 440억 원에서 이번 신고에 그 스톡옵션과 RSU(일정 시간 근무조건 충족시 추후 주는 주식)와 미국 주식을 판매했다며 신고 안한 그 차액 190억 원은 지금 어디로 갔을까. 한 인터넷 매체는 “네이버 근무 당시 받은 급여가 보너스 성과급 등 합쳐 모두 약 103억 원, 순수 퇴직금이 40억 3,800만 원”이라며 엄청난 자산가라고 주장했다.

다주택 소유도 청문회 아킬레스건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3월 이후 강력한 다주택 제재 정책을 천명해왔는데 한성숙 총리후보자가 바로 전형적인 다주택자이기 때문이다. 지난 4월 12일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2주택 이상 소유자는 6월 9일 이후 매도 시 양도세를 중과한다며, “기안 용지를 복사하는 직원이라도 다주택자는 안 된다.”고 했다. SNS에서도 “다주택자는 마귀에게 최소한의 양심을 빼앗긴 것은 아닌가. 높은 주거비용에 결혼, 출산을 포기하는 수백만 청년의 피눈물은 안 보이나.”라고 질타했다.

한편 6월 14일자 언론에는 한 후보자가 지난해 연말에 서울 연건동 상가건물 2채를 연결하는 공사를 불법으로 강행하다가 총리후보자 지명 후 철거했다는 의혹이 새롭게 제기됐다.

청문회에서 ‘AI·현장 경제 전문가’라는 한 후보자의 장점이 부각되는 동시에 다주택자, 250억 원대 자산가, 고액 연봉의 네이버 출신이라는 게 쟁점화 될 전망이다. 청문회를 통과하면 7월 초순께에는 두 번째 여성 총리가 탄생한다.☞

환율 불안...원가 ↑ 투자 ↓ 비상

경제 포커스

달러 강세에 흔들...금융-소비시장 파급



조희곤

본지 편집위원
전 내외경제 논설위원

최근 원·달러 환율의 등락이 계속되면서 국내 산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환율(Exchange Rate)은 한나라의 돈을 다른 나라 돈으로 바꿀 때의 비율이다. 환율은 단순히 외화를 바꾸는 숫자가 아니라 기업의 수익과 소비자 물가, 국가의 흐름까지 바꾸는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환율은 전 세계 경제 주체들이 한 나라의 미래를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종합 경제지표이기도 하다. 전문가들은 환율 불안이 장기화될 경우 기업들의 원가부담 증가와 소비 위축, 투자 감소, 민생 회복 지연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한다. 지난달 초 1,600원 턱밑까지 올랐던 원·달러 환율은 정부 개입으로 6월 중순 현재 1,500원대 초반까지 내려왔지만 달러 강세, 원화 약세 흐름이 바뀐 건 아니어서 긴장감은 계속되고 있다. 달러 강세를 자극하는 불안 요인들이 아직도 상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반도체, 배터리, 항공·여행업계 등이 대표적 피해 섹터

실제로 국내 제조업과 유통업계에서는 환율 상승에 따른 원자재 가격 상승 부담이 커지고 있다. 반도체 장비, 배터리 소재, 원유, 곡물 등 상당수 원자재와 부품 확보를 수입에 의존해야 하는 태생적 한계를 갖고 있다. 환율이 오르면 같은 물건을 사더라도 더 많은 원화를 지불해야 하는 관계로 기업 입장에서는 생산비 부담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 항공업계와 여행업계 역시 긴장하고 있다. 항공기 리스료와 항공유 결제 대부분이 달러로 이루어지는 구조 때문이다. 환율이 오르면 해외여행 비용도 함께 증가해 여행 수요가 감소로 나타날 수 있다. 유학이나 해외 투자, 해외 직구 등을 하는 개인도 환율 변화에 민감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환율 불안은 또한 외국인 투자 흐름에도 영향을 준다. 환율 변동성이 커지면서 해외 투자자들이 국내 시장을 불안하게 바라볼 가능성이 있다. 이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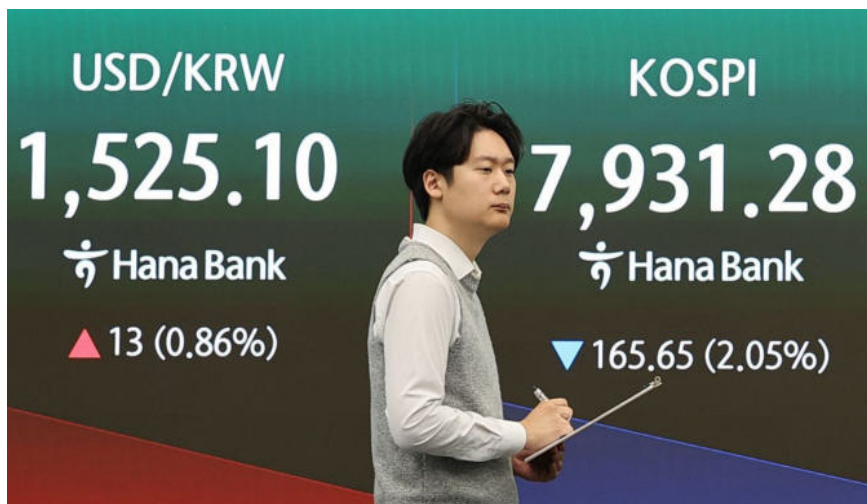
인해 주식시장과 금융시장 불안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실제로 지난달 11일의 경우만 보더라도 외국인들은 한국 증시에서 1조5천억 원 가까이 주식을 내다 팔면서 24일 연속 순매도 행진이 이어졌다. 주식을 팔고 나면 원화를 달러로 바꿔 본국으로 가져가게 되고, 이 과정에서 달러 수요가 늘어나면서 환율 상승 압력도 커질 수 있다. 결국 환율은 단순히 외환시장만의 문제가 아니라 산업·금융·소비심리까지 연결되는 경제 전반의 문제라는 평가다.

6월 원·달러 환율은 한 때 1,560원을 돌파하며 2009년 금융위기 이후 17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올해 들어서만 국내 증시에서 120조 원에 육박하는 규모를 순매도 하며 빠져나갔다. 2~3월에만 60조원 규모를 매도했다. 반도체와 자동차 중심의 '리밸런싱'과 차익 실현 매물이 이어지며 역 송금 달러 수요를

계속 키우고 있다. 외국인 투자자가 한국 주식을 팔면 원화로 수익을 받고, 그것을 다시 달러로 바꿔 나가는 구조다. 즉, 주식을 팔 때마다 시장에 원화 공급이 늘고 달러 수요가 동시에 폭발하게 된다.

불과 2~3년 전만 해도 원·달러 환율 1,300원 중반 대를 '다소 높은 수준'이라고 봤다. 그런데 2025년대를 거치면서 1,400원 대가 일상이 되더니, 2026년에는 1,500원대 중반이 새로운 기준, 이른바 '뉴 노멀'로 자리 잡고 있는 형국이다. 환율의 '레벨 시프트', 즉 기준점 자체가 두 단계나 올라선 것이다. 그러나 원·달러 환율은 연말에는 안정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노무라증권은 이와 관련, "외국인의 국내 증시 매도세가 3분기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올해 3분기 환율은 1,500원 선을 유지하다 연말엔 1,470원대로 하락할 것"이라고 최근 전망했다.

이런 가운데 미국 관세정책과 연관된 우리의 대미투자특별법이 지난달 18일 시행에 들어갔다. 지난해 한·미 정상회담 합의한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이행을 뒷받침하는 법이다.



지난달 10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 전광판에 금융시장 지표가 표시돼 있다. (연합뉴스 제공)

한국이 양해한 총 3,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 펀드 중 1,500억 달러는 기업 투자를 통해 조선분야에 투입된다. 나머지 2,000억 달러는 인공지능(AI), 반도체, 바이오, 에너지 등 양국이 합의한 분야에 현금으로 10년간 분할 투자된다. 문제는 이처럼 막대한 달러

로 몰리게 돼있다. 이는 곧 달러화 강세, 원화 약세를 유발한다.

정부, 주요 수출기업에 달러로 받은 수출 대금 환전 당부

좀처럼 환율 불안이 잡히지 않자 정부는 최근 주요 수출기업들을 불러모

1,500원대 중반 '뉴노멀'로 자리잡을듯

자금이 미국으로 빠져나가면 가뜩이나 불안한 환율이 추가 상승 압력을 받게 될 것이라는 데 있다. 이 결과 수입 물가가 급등해 기업 채산성이 악화되고, 국민의 지갑이 얇아지면서 대미 투자 거부감은 커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결국 대미 투자가 속도를 내려면 환율 안정이 필수적이다.

미국 금리도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최근 미국 물가 상승률이 4.2%까지 오르면서 미국 금리가 당분간 높은 수준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금리가 높으면 달러 자산의 매력이 커지고, 글로벌 자금도 달러 쪽으로 몰리는 경향이 있다. 지난해 말까지만 해도 월가의 투자은행들은 올해 상반기 중 완만한 금리 인하 사이클이 시작될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예상보다 양호한 미국 경제와 인플레이션 재반등의 우려로 미국의 금리인하 기대감은 사실상 물 건너갔다.

오히려 금리 인상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 한·미 금리 차도 달러 강세를 유발하는 요인 중 하나다. 6월 현재 양국 간 금리 차는 미국이 한국보다 1.25%p 높다. 돈은 금리가 높은 곳으

로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에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6개 주요 수출 대기업이 참석했다. 이들의 공통점은 해외에서 물건을 팔고 달러를 벌어들이는 대표 수출기업들이라는 점이다. 정부는 이들 기업에 "수출 대금을 받으면 바로 환전하고, 해외에 쌓아둔 자금도 국내로 들여와 달라"고 요청했다. 기업들이 보유한 달러를 시장에 내놓게 되면 달러 공급이 늘어나고, 이는 결국 환율 상승 압력을 낮추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최근의 환율 불안은 새로운 악재가 나왔다고보다는 기존 악재들이 해소되지 않은 채 계속 쌓여 있는 상황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판단이다. 현 상황에서 전문가들은 무엇보다 미국 금리와 국제 정세에 따라 당분간 환율 변동성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외환 당국의 철저한 대비책이 요구된다. 환율 불안을 야기한 한 축인 미국-이란 전쟁이 끝났다고 결코 방심해선 안 되겠다. 환율은 재정, 성장, 산업, 정책, 외교 등에 대한 국내외 투자자들의 종합 평가란 점을 명심할 일이다. ☐

군사주권 회복? **韓美전작권** 안보공백 우려? 바보야, ‘전쟁 억제력’이야



류종현
본회 편집위원,
전 MBC워싱턴특파원

한·미 상호방위조약과 전시작전통제권 (OPCON)

최근 전시작전통제권(OPCON) 전환 문제가 다시 정치권과 안보 전문가들 사이에서 뜨거운 논쟁거리로 회자되고 있다. 그런데 이 주제는 늘 그랬듯이 한쪽에서는 ‘군사주권 회복’을 강조하면, 다른 한쪽에서는 ‘안보 공백의 우려’를 제기한다. 작금의 언론 보도나 정치권의 전작권전환의 찬반 구도의 논쟁은 정작 문제의 본질을 놓친 채 허공의 메아리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 필자의 시각이다. 전작권 전환의 핵심은 누가 지휘봉을 잡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전환 이후에도 대한민국의 안보와 한반도 전쟁 억제력이 지금보다 더 강해질 수 있느냐의 여부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미 미국 하원에서 통과된 국방수권법에서 한반도 주둔 미군 숫자의 감축이나 미국의 이익에 반하는 논의 자체가 제한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 언론이나 정치권이 공히 놓치고 있기 때문이다.

한·미 상호방위조약과 전시작전통제권

전시작전통제권은 한국전쟁이 한창이던 1950년 유엔군사령관에게 위임했다. 이후 1978년 한·미연합사가 창설되면서 세계적으로도 유례없는 연합방위체제가 구축되었다. 1994년 평시작전통제권을 환수한 뒤에도 전시작전통제권은 한·미연합사 체제 아래 유지되어 왔다. 그런데 그동안 전작권 전환은 여러차례 추진과 연기를 반복했다. 참여정부 시절에는 2012년 전환이 합의되었고 이후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증대와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사태 등을 거치면서 연기되었다. 이후 박근혜 정부에서 ‘조건에 기초한 전환’ 원칙이 도입되면서 현재는 미래연합사 체제 구축을 위한 검증이 진행되고 있다. 여기서 한·미 상호방위조약을 거론하는 것은 주한 미군의 작전대상이 과거 한반도에 국한되었던 것이 태평양으로 확대되었다는 사실이다. 전환이 완료되면 한국군 4성 장군이 미래연합사령관을



한국전략문제연구소 주최 ‘미국 안보·국방 전략의 대전환과 한·미 동맹의 현대화’ 세미나가 6월 19일 공군호텔에서 열려 김태우 박사가 발언하고 있다.

말고, 미군 4성 장군이 부사령관을 맡게 된다. 일부에서는 이를 두고 ‘한국군이 지휘권을 행사하게 된다’는 점만을 강조하지만, 실제로 문제는 훨씬 복잡해진다.

‘한·미상호방위조약’ 전문에는 아래 명기된 것처럼 ‘태평양 지역’이라는 작전 지역 범위가 세 번이나 등장한다.

“본 조약의 당사국은, 모든 국민과 모든 정부가 평화적으로 생활하고자 하는 희망을 재확인하며, 또한 태평양 지역에 있어서의 평화기구를 공고히 할 것을 희망하고, 당사국 중 어느 1국이 태평양지역에 있어서 고립되어 있다는 환각을 어떠한 잠재적 침략자가 갖지 않도록 외부로부터의 무력 공격에 대하여 그들 자신을 방위하고자 하는 공동의 건의를 공공연히 또한 공식으로 선언할 것을 희망하고, 또한 태평양지역에 있어서 더욱 포괄적이고 효과적인 지역적 안전보장 조치가 발달될 때까지 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고자 집단적 방위를 위한 노력을 공고히 할 것을 희망하여 다음과 같이 동의한다.”

오늘날 한반도 안보는 한미연합사만으로 유지되지 않는다. 주한미군, 유엔군사령부, 미국 인도태평양사령부, 일본에 위치한 유엔사 후방기지, 그리고 미 본토와 괌·하와이에서 전개되는 증원전력이 하나의 거대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다.

특히 공군과 해군 분야에서는 더욱 민감한 문제가 존재한다. 유사시 한반도 방어의 핵심 역할을 수행하는 전략폭격기, 항공모함, 핵잠수함, 장

거리 정밀타격 자산은 대부분 미국이 보유하고 있다. 미래연합사 체제에서도 이러한 전략자산의 운용과 지휘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질 것인지는 아직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다.

더욱 중요한 것은 북한 핵 위협이다.

과거 전작권 논의가 재래식 전쟁 중심이었다면, 오늘날 한반도 안보의 중심에는 핵이 있다. 북한은 이미 핵무력 고도화를 지속하고 있으며, 한반도 유사시 억제력의 핵심은 미국의 확장억제에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한반도에 북한의 핵무기 위협이 존재하는 한 전작권이 한국군으로 전환된다 하더라도 핵 사용 결정권은 여전히 미국에 남아 있고, 따라서 미국의 핵우산, 전략폭격기 전개, 핵잠수함 운용, 전략자산 투입 등이 한반도 안보의 핵심 축으로 남게 되는 상황에서 전략 자산의 운용과 지휘, 나아가 ‘확장억제의 신뢰성’에 의해 전쟁의 승패가 결정될 수 있다는 현실적인 문제가 남게 된다.

미국 역시 전작권 문제를 단순한 지휘권 이전 차원에서 바라보지 않는다. 워싱턴의 전략가들에게 한반도는 북한만을 상대하는 전장이 아니라 중국을 견제하고 인도·태평양 전략을 수행하는 핵심 거점으로서 미국이 전작권 전환 문제를 신중하게 접근하는 진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지휘권 회복’이라는 감정적 접근보다 국익중심의 ‘전략적 접근’으로

전작권 전환은 군사주권 회복이라는 상징적 의미를 넘어 한·미동맹을



더욱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한국군은 첨단 지휘통제체계(C4I), 합동작전 수행능력, 연합작전 기획능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야 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한·미 핵협의그룹(NCG)과 핵·재래식 통합운용체계를 발전시켜 미래연합사 체제가 미국의 확장억제 체계와 빈틈없이 연결되도록 해야 한다. 동시에 유엔군사령부와 인도태평양사령부, 일본 내 유엔사 후방기지와의 협력체계도 유지·발전시켜야 한다.

국가안보에 이념도 정파를 앞세우는 것은 곤란하다.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자유를 지키는 것이고 대한민국의 국익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이다.

따라서 전작권 전환은 그 자체가 목표가 될 수 없다. 분명한 목표는 강한 억제력이고, 흔들림 없는 한·미동맹이다. 미래연합사 시대가 진정 성공하려면 “누가 사령관인가”라는 상징적 논쟁을 넘어 “누가 대한민국을 더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가”라는 본질적 질문에 답해야 한다. ☞

“런던에 싫증난 사람은 인생에 싫증난 사람” 영국은 축제 천국…연간 1000여개 축제

특파원 수첩

런던 ⑮



박창래

전 동아일보 런던특파원
전 동아일보 편집국장 대우
전 초록우산어린이재단
대표이사

영국은 가히 ‘페스티벌의 나라’이다. 매년 수많은 각종 예술축제가 줄을 잇는다. 보통 영국 전역에서 열리는 크고 작은 음악 축제만도 연간 1,000 여개. 공식적으로 상업적 규모를 갖춘 축제는 300 여개 정도이지만 마을 단위의 소규모 지역 축제까지 합치면 그 수는 훨씬 늘어난다. 거리마다 사연이 얹혀있고, 건물마다 역사가 배어있어 관광거리도 차고 넘친다. 그래서 18세기 영문학자 새뮤얼 존슨박사는 말했는지 모른다. “런던에 싫증난 사람은 인생에 싫증난 사람이다.”라고.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축제가 런던의 BBC 프롬스(Proms)와 에든버러 국제 축제(Edinburgh International Festival). 모두가 영국의 자존심이다. 클래식 음악을 좋아하는 팬들이라면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세계 최대의 클래식 축제가 BBC 프롬스. 런던 시내 로열 알버트 홀에서 두 달간 매일 펼쳐지는 클래식의 향연. 그 대미를 장식하는 공연 ‘프롬스의 마지막 밤’은 모든 관객이 깃발을 흔들며 애국적인 노래를 합창하는 것으로 가슴을 뭉클하게 하는 장관이다. 6층 높이의 타원형 돔 형태의 거대한 홀이지만 프롬나드라는 이름에 걸맞게 아래 나에서 서서 관람하는, 값싼 입석표가 있어 누구나 가볍게 접근이 가능하다.

이에 비해 스코틀랜드의 수도 에든버러 축제는 모든 공연 예술의 종합판이다. 연극, 영화, 클래식, 오페라, 발레, 무용, 마술, 서커스, 재즈, 코미디, 팬토마임, 각종 전시회, 심지어는 시(詩) 낭송에 이르기까지 모든 예술 장르를 넘나드는 공연의 면면이 무궁무진, 다채롭기 이를 데 없다. 축제란 과연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는 명실공히 세계 최대 축제의 전형이다. 인구 50만 명의 고도에 한달 동안(8월 7일부터 31일까지) 무려 200만 명의 관광객이 거리를 메우며 흥을 돋우고

도시 전체가 축제 무드에 빠져드는 이유이다.

2차 대전 직후 전쟁의 상처와 황폐함 속에서 인간의 정신을 예술로 치유하고 화합하자는 취지로 1947년 시작, 올해로 79회를 맞는다. 좋은 무대는 좋은 배경이 만들어 준다는 듯 높이 150m의 암석 위에 우뚝 솟은, 1,500년의 역사를 지닌 신비스러운 에든버러 성(城) 주변 올드 타운과 뉴빌리지가 그대로 축제의 무대가 되어 흥취를 돋우고 국제적 명성을 얻게 된 또 하나의 요인이다.

에든버러 페스티벌은 매년 특정한 타이틀을 내걸고 특색을 살려가고 있는데 2026년도 공식 주제는 ‘All Rise’(모두 일어나라. 함께 도약하자).

올해는 미국 독립 250주년이 되는 해이기 때문에 미국이라는 거대한 영광로 가진 빛과 그림자를 다각도로 조명하며 함께 일어서자는 연대의 메시지를 담고 있다. 주요 공연은 오페라 베르디의 가면무도회가 무대에 오르고 풀리처 상을 받으며 현대 연극



지난 2023년 8월 27일 영국 스코틀랜드 에든버러에서 국제 군악축제 ‘로열 에든버러 밀리터리 타투’가 열리고 있다.(연합뉴스 제공)

경하는 사람들에게 보란 듯 고적대의 고난도 제식과 연주하는 한 가닥 흐트러짐이 없었고 한층 더 황홀한 분위기를 연출해 주었다.

금년도는 밀리터리 타투가 출범한

제 발족 때 공식 초청을 받지 못한, 재능은 있되 가난한 예술가들이 주변(Fringe)에서 공연을 펼치며 비공식 축제가 동시에 탄생, ‘공식’보다 더 큰 흥행을 이루게 되었다.

세계 곳곳에서 몰려든 아마추어 예술가들은 누구든지 장소만 구하고 프린지협회에 신고만 하면 아무런 간섭도 받지 않고 자기의 숨은 재주를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것. 그들은 자기네 주변 관객을 상대로 춤, 연주, 즉석 연기로 스스로의 실력을 시험해 보며 구경꾼들을 즐겁게 해 준다. 그러다가 평론가들의 눈에 띄면 일약 스타로서 빛을 발하게 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그러니까 미래의 스타를 미리 만나볼 수 있는 곳. 이들의 공연 스케줄도 페스티벌의 일정과는 별도로 배포되고 그들에 관한 전문 책자들이 발간될 정도이다.

올해 프린지 주제는 ‘Mixitup’(다 함께 섞여서 즐겨라). 전 세계 71개국에서 모인 예술가들에 의해 3,600개가 넘는 기상천외한 공연이 펼쳐진다.

금년부터 우리나라에서도 서울 어텀페스타(Autumn Festa)를 계획하고 있다. 매년 10월 제각각 열리던 수많은 공연 축제들을 하나로 연결해 서울의 가을을 대표하는 페스티벌로 승화시킨다고 한다.

시청앞 개막 공연을 시작으로 여러 공연장 뿐만 아니라 광장, 청계천,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등 곳곳에서 예술 장르를 넘나드는 각종 축제와 공연 116편이 시민들과 만난다. 에든버러 축제의 서울 축소판이다. ㉠

BBC 프롬스, 세계 최대 클래식음악 제전 두달간 콧노래

에든버러 페스티벌,군악행진 압권… K전통의장대 갈채

의 고전으로 평가받는, 토니 커쉬너의 걸작 앤젤스 인 아메리카(Angels in America)가 킹스 시어터에서 공연된다. 세계적 여성 바이올리니스트 니콜라 베네데티 연주도 관중을 사로잡는다.

그 중 밀리터리 타투(Military Tattoo)의 인기는 하늘을 찌른다. 스코틀랜드의 전통을 기반으로 전 세계의 취주악과 시각 퍼포먼스가 에든버러 성 앞 광장에서 어우러지는 국제적 군악축제. 매일 저녁 9시 고성(古城)에 어둠이 깔리면 천연색 조명을 받으며 신비로움을 자아내는 성문 앞에서 전통 의상, 킬트 치마에 백파이프를 부는 스코틀랜드 전통의 군악행진이 전개되는데 그 사이사이에 외국의 군(軍) 고적대들이 출연, 관람객들을 열광시킨다. 필자가 미리 티켓을 구입한 날은 마침 내리던 가랑비가 굵은 빗줄기로 바뀌어 연주가 취소되는 것이 아닌가 걱정했더니 그것은 기우. 오히려 우산을 받쳐 들고 구

지 75주년이 되는 뜻 깊은 해. 그래서 정해진 공식 주제가 ‘우리를 만든 영웅들’(The Heroes Who Made Us). 전 세계에서 엄선된 40여 개국 팀들을 초청, 우리 사회를 지키고 영감을 준 영웅들을 기리는 장엄한 음악과 정교한 제식(마칭 쇼), 전통 춤을 선보인다. 영국의 육, 해, 공군 군악대는 물론이고 톱 클래스 정예 군악대인 미국 해병대, 육군 고적대, 노르웨이 국왕 의장대, 독일, 호주와 뉴질랜드 등의 군악대들은 단골. 스위스의 정교한 타악기 팀에 남미나 아시아 국가의 화려한 콜라보레이션 등이 장관이다. 우리나라에서도 군악대와 전통 의장대가 두차례 초청받아 국악 관악기와 전통무예, 사물놀이를 결합한 독창적인 퍼포먼스로 엄청난 찬사를 받았다.

공식적인 행사 이외에 축제를 더욱 흥겹게 하는 것은 아마추어 예술가들이 벌이는 갖가지 비공식 공연, 이름하여 프린지(Fringe)다. 처음 축

민주화 후 ‘경제 하향 평준화’ 초래

대한언론 특별기획 박정희 경제기적 재조명 ⑫



좌승희 박사
아주대 국제대학원 초빙교수
전 박정희대통령기념재단 이사장

2. 한국의 정치·경제체제와 경제 변천사

이제 한국의 역사를 개관해볼 차례이다. 한국은 건국 이후 크게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으로 이어지는 소위 건국과 개발연대와 87년 이후 소위 서구식 정치 민주화시대로 나눠 볼 수 있다.

개발연대는 이승만시대의 자유민주·시장경제 체제하에서의 (6·25 전쟁 등 여러가지 이유로) 취약했던 정책집행력을 박정희시대, 정부의 강력한 중앙집권화된 추진력과 기업육성 전략이 보완되면서 전형적인 서구 산업혁명시대와 유사한 ‘시장 권위주의 시대’를 경험하였다. 박정희시대는 수출 기적과 중화학공업화로 서구가 수백년이 걸린 산업혁명을 20년 만에 완수하였다.

5공화국이 여러가지 정치적인 이유로 박정희 시대를 벗어난다고 정의 사회구현을 정권의 깃발로 내걸고, -정의롭지 않은 박정희시대를 벗어나-, 박정희식 산업화정책을 버리고 선진형 시장중심 경제 운영체제로 전환을 선언하였다. 그러나 이미 깔린 박정희식 경제운영 고속도로를 벗어나지는 못하였다. 국제경제의 3저 현상으로 대외 환경이 개선되면서 박정희 사생아로 비판받던 중화학기업들이 활개치면서 5공화국시대 후반은 단군 이래 최고의 호황과 중진국으로의 도약을 주도하였다. 이 과정을 통칭해 개발연대 한강의 기적이라 부를 수 있을 것이다. 당시 1987년 정치 민주화는 이제 ‘시장 권위주의시대’를 넘어 모두가 바라는 선진형 ‘시장 민주주의시대’를 열었다고 믿어 의심치 않았다.

그러나 ‘시장 민주주의시대’의 여정은 기대처럼 순탄치 못했다. 김영삼 정부가 ‘시장 민주주의시대’를 자임하는 듯했으나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김대중 정부의 ‘평등 민주주의 시대’로 이양되었다. 김영삼, 김대중 정부는 모두 철저적 민주주의를 주장했으

나 그 내용상으로는 결이 다른 민주주의였다. 여기서 제시한 분류 기준에 의하면 당시 내세운 경제정책 기조를 가지고 판단한다면 김영삼 정부는 상대적으로 시장의 차별화 기능을 수용하는 시장 민주주의에 가까운 우파 민주주의라고 한다면 김대중 정부는 상대적으로 경제 평등주의를 앞세우는 좌파 민주주의라 구분할 수 있다.



1917년 한강 최초의 인도교로 개통된 한강대교가 10월 17일 건립 100주년을 맞는다. 1950년 6월 28일 한국전쟁 당시 폭파돼 1954년 복구를 거쳐 1981년 8차선으로 확장됐다. 1984년에는 ‘제1한강교’에서 지금의 ‘한강대교’로 이름을 바꿨다. (연합뉴스 제공)

YS부터 尹정부까지 ‘평등 민주주의’ 펼쳐 과실 줄면 내뿜창기기 혈안 나라근간 흔들

그 이후 등장하는 노무현, 문재인 정부는 좌파 민주주의를 표방했고 이명박, 박근혜, 윤석열은 우파 민주주의에 가깝다고 판단되지만, 사실상 여기서 좌파 민주주의는 그 성향과 표방하는 정책이 좌파적 성격을 분명히 하고 있지만 우파 민주주의는 복지국가로 지향하는 선진국 평등 민주주의로 빠르게 바뀌면서 좌경화 경향이 뚜렷해져 이제 두 정파 모두 개발연대에 비해 강한 평등주의 정책 경향을 공유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정리하면 한국의 건국 이후 정치·경제체제는 개발연대의 강력한 ‘시장 권위주의체제’에서 정치 민주화 이후

에는 지속해서 ‘평등 민주주의 체제’로 좌경화되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선진국들의 60년대 이후 유럽의 사민주의 추세와 미국의 수정자본주의 추세로의 급진전과 크게 다르지 않아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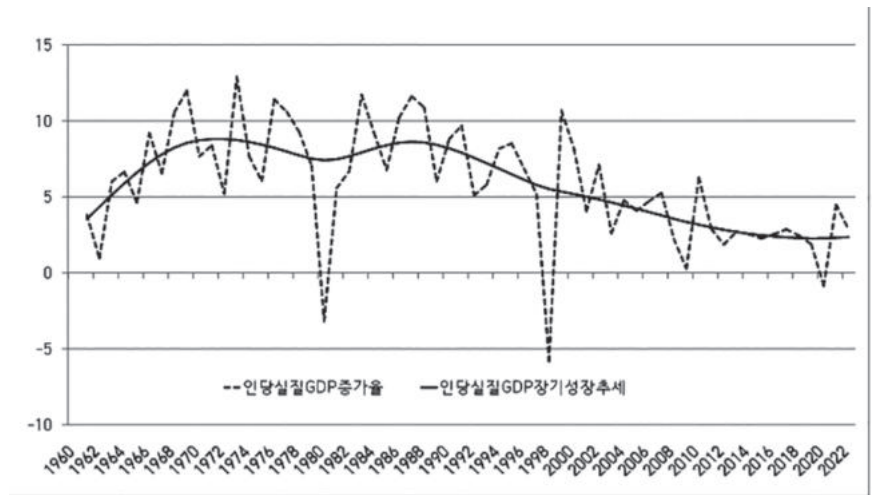
필자의 연구에 의하면 선진국들이 60년대 이후 성장과 분배가 악화되는 추세와 한국의 정치 민주화 이후 지속된 성장과 분배의 악화 추세가 일치하는데 이 모두가 이미 지적한 대로 너무 의욕적으로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평등민주주의 체제’의 영향 때문으로 분석되었다. 앞으로의 관심은 ‘시장권위주의’에서 시작해 ‘우파 시

장 민주주의’를 거쳐 ‘좌파 평등 민주주의’에 이른 한국의 정치·경제체제가 향후 어디로 향할지이다.

그동안 한국이 평등 민주주의 체제 하에서 성장둔화와 지속적 분배악화라는 ‘저성장·양극화’ 혹은 성장둔화와 분배의 개선 없는 안정이라는 ‘경제의 하향평준화’를 경험해 왔음을 시사하고 있다. 만일 이 상태가 지속되면 성장의 과실이 줄어들기 때문에 시장분배에 대한 신뢰가 떨어져 정치 권력을 이용한 자기 몫 챙기기가 기승을 부리게 되고 민주주의 다수결 방식이 그 수단으로 전락하여 민주주의 체제의 불안을 조장할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자칫하면 최악의 정치·경제체제인 ‘평등 권위주의’체제로 이행하게 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워 보인다.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

한국의 1960년 이후 실질 소득 증가율(%) 추세
(민주화 이후 10년에 2% 포인트씩 하락)



‘순정의 사랑’ 저음 호소에 가슴이 뭉클

‘나하나의 사랑’, 1955년 여가수 송민도가 불러 히트

신대남

칼럼



‘그 시절 그 노래’

〈16〉

그때는 그랬다. 마음 가는 사람이 있어도 수줍어 말 못하고 몇 날을 고민하다 연애편지라는 것을 써서 담장 너머로 던져넣고 달아나던 수줍고 순진한 시절이 있었다. “나 혼자만이 그대를 사랑하고” “나 혼자만을 그대는 믿어주고” 영원히 행복하게 살고 싶은 게 사랑의 본질이고, 그 같은 사랑의 염원은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지만, 요즘, 뉴스에서 보는 사랑의 형태는 그때와는 달리 스토커라는 것도 있고 보고 싶지 않은 사이비 사랑의 폭력에 채널을 돌릴 때가 있다.

1955년 가수 송민도가 ‘나 하나의 사랑’을 노래했다. “나 혼자만이 그대를 알고 싶소/ 나 혼자만이 그대를 갖고 싶소/ 나 혼자만이 그대를 사랑하여/ 영원히 영원히 행복하게 살고 싶소.” 1절의 가사에서 그대에게 보내는 구애의 메시지를 노래하고, 2절에선 “나 혼자만을 그대여 생각 해주/ 나 혼자만을 그대여 사랑 해주/ 나 혼자만을 그대는 믿어주고/ 영원히 영원히 변함없이 사랑 해주”라고 그대에게 영원하는 사랑을 노래했다. 사랑의 본질인 순정을 주제로 손석우가 작사하고 작곡한 이 노래를 애상이 깃든 송민도 특유의 잔잔한 저음으로 노래해 대중의 깊은 공감을 얻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른 작금에야 순정이라는 말도, 연애편지라는 용어도 사전에서나 찾아 보아야 할 퇴색한 추억이 되고 시도 때도 없이 카톡 카톡거리는 핸드폰의 문자 메시지가 연애편지가 되고, 때로는 스토커의 문자 폭탄으로 변질이 되는 삭막하고 험한 세상이 됐다. 송민도는 ‘나 하나의 사랑’을 노래한 1년 뒤인 1956년, KBS에서 방송한 한국 최초의 라디오 연속극 ‘청실홍실’(이상훈 연출)의 주제가를 안다성과 함께 노래했다. 드라마 작가 조남사가 가사를 쓰고 KBS 경음악단장 손석우가 작곡한 ‘청실홍실’은 안다성이 첫 소절을 부르고 송민도가 두 번째 소절을 노래하고 3소절과 4소절을 합창으로 불렀다.

“청실홍실 엮어서 정성을 들여/ 청실홍실 엮어서 무늬도 곱게/ 티 없는 마음 속에 나만이 아는/ 음~ 음~ 수를 놓았소.” 1절에선 티 없는 사랑을 수놓고, 2절에선 “인생살이 끝없는 나그네 길에/ 인생살이 끝없는 회오리바람/ 불어도 순정만은 목숨을 바쳐/ 음~ 음~ 간직했다오.”라고 회오리바람 치는 인생과 사랑을 순정으로 견디어 내는 심경을 노래했다. 3절은 또 “청실홍실 수 놓고 셋별 우리러/ 청실홍실 수 놓고 두 손을 모아/ 다시는 울지 말자 굳세게 살자/ 음~ 음~ 맹세한다오.”라고 사랑하는 임을 셋별



‘나 하나의 사랑’을 크게 히트시켰던 가수 송민도.

한국 연예사의 기념비적인 작품이다. 송민도는 또 유두연 감독이 연출하고 최무룡, 김지미, 김동원, 황정순이 출연한 영화 ‘카츄샤’의 주제가 ‘카츄샤의 노래’까지 히트하면서 1950~70년대 드라마와 영화의 주제가 붐을 일으키고, 순정 시대였던 그 시절의 한국사회 사랑의 정서를 노래로 남긴 한 시대의 대표적인 가수가 됐다.

송민도는 1923년 경기도 수원시에서 태어났다. 이화여고를 나와 목회자인 아버지를 따라 중국 옌지(延吉)에서 잠시 유치원 보모로 일을 하다 태평양 전쟁이 끝나고 서울로 돌아와 1947년 서울 중앙방송국(KBS) 전속가수 1기생으로 합격해 가수가 됐다. 바로 그해 조명암 작사, 박시춘 작곡의 “남쪽 나라 바다 멀리 물새가 나르면/ 뒷동산에 동백꽃도 곱게 피는데...”의 그 ‘고향초’를 불러 데뷔곡부터

애수어린 목소리로 가슴에 찢어드는 노래로 사랑을 받았다. 그리고 ‘청춘 목장’ ‘하늘의 황금마차’ ‘여옥의 노래’ ‘나의 탕고’ ‘축배의 노래’ ‘행복한 일요일’ 등의 노래를 불렀다.

1968년 월남전에 파병돼 소식이 끊긴 아들을 찾아 가수를 그만두고 사이공으로 갔다. 그곳에서 무사한 아들을 만나 3년 동안 식당을 운



송민도가 주제가 두번째 소절을 부른 ‘청실홍실’의 영화포스터.

1923년 수원生, 이화여고 졸업... ‘청실홍실’도 인기 미국LA에 정착 100세 타계...남이섬에 노래비 우뚝

처럼 우러르고 손 모아 기도하는 마음으로 굳세게 살자고 맹세했다. 그런 순정이 1950~60년대 유행가와 드라마, 영화 등 대중 예술에 비친 사랑의 정서였다.

‘청실홍실’은 라디오 드라마와 주제가가 함께 히트하면서 1957년 서라벌영화공사에서 정일택 감독 연출로 이민, 엄앵란, 주중녀, 김희갑 등 당대의 스타들이 출연한 영화로 만들어 흥행에도 성공했다. 또 1977년 TBC(동양방송) TV에서 고성원 연출로 김세윤, 정윤희, 장미희, 강부자, 백일섭 등이 출연한 TV 드라마로 제작해 방송을 했다. 그리고 또 15년 뒤 1992년, SBS TV에서 이장수 감독이 연출하고 최명길, 이응경, 김영철, 조경환, 김용림 등의 출연으로 리메이크한 드라마를 방송했다. 작품의 대강 줄거리는 성공한 한 회사원이 옛 애인과 회사 사장의 딸 사이에서 갈등하는 그 시대의 눈물샘을 자극한 이야기다.

‘청실홍실’은 이처럼 한국 최초의 라디오 연속극으로 시작해 영화와 두 번의 TV 드라마로 방영된

영하고 1971년 아들과 함께 미국 로스앤젤레스로 건너가 정착했다. 역사적인 가수이기 전에 한 어머니였다. 그리고 2023년 2월 28일 LA에서 향년 100세를 일기로 운명했다. 2014년 춘천시 남이섬에 세운 ‘나 하나의 사랑’의 노래비가 있다. 노래비의 제막식에는 ‘나 하나의 사랑’의 작사, 작곡가 손석우와 안다성, 한명숙, 금사향, 한상일 등의 가수가 참석하고 송민도는 미국에 있어 참석하지 못했다. 그리고 손석우도 2019년 11월 12일 98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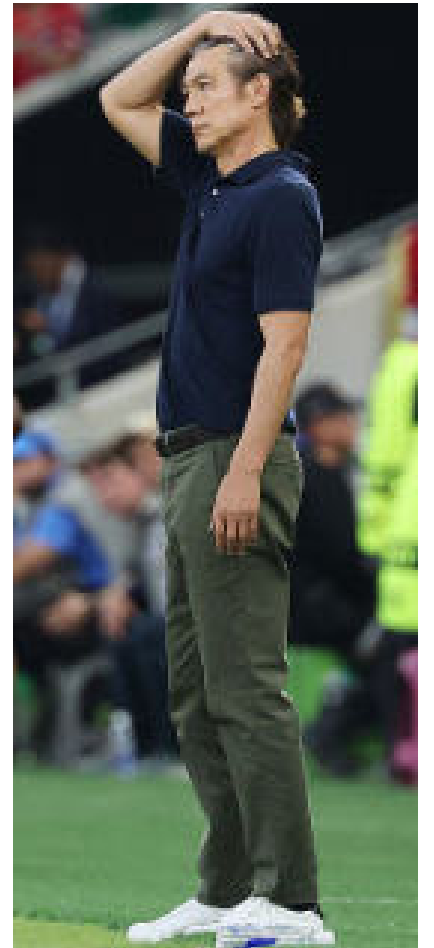
1960년대 한국 가요계에 스탠더드 팝의 새 시대를 연 작곡가 손석우도, 가수 송민도도 세월 따라 떠나고 그들을 기리는 노래비와 노래만 지난 세월의 추억의 그리움으로 남았다. 우리 사회도 더는, 스토커나 일그러진 사이비 사랑의 뉴스가 사라지고 순정 시대의 노래를 다시 들을 수는 없는 것인지. 추억의 순정시대가 그리운 시대다. ㉠

신대남(본회 이사·전 한국일보사 일간스포츠편집국장·상무이사)

한국 탈락 ... “감독이 기가 막혀”



6월24일(현지시간) 멕시코 몬테레이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6 북중미 월드컵 A조 3차전 남아프리카공화국과의 경기에서 한국의 이강인(맨 왼쪽)이 볼을 드리블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한국 축구 국가대표팀 홍명보 감독이 24일(현지시간) 멕시코 몬테레이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6 북중미 월드컵 A조 3차전 남아프리카공화국과의 경기에서 어두운 표정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아쉽다. 한국 축구가 FIFA(국제축구연맹) 월드컵에서 치욕적인 결과로 32강 진출에 실패했다.

2026 북중미 FIFA 월드컵에서 자력으로 32강 진출을 꿈꿨던 ‘홍명보 호’. 그러나 서전을 역전승으로 장식하면서 부풀었던 기대감은 내리 두 판을 내주며 오히려 좌절의 쓰라림을 맛봐야 했다.

월드컵 본선 항해를 앞두고 홍명보 한국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은 “2연속 결선 라운드 진출을 반드시 해내겠다.”라는 결연한 출사표를 밝혔다. 홍명보호의 염원이자 지상 과제는 ‘4+α’였다. 곧, 조별 라운드 관문을 뚫고 32강전 이상을 올라가야 달을 수 있는 희망봉이었다.

홍 감독은 ‘태극호’를 이끌고 처음 본선에 도전장을 던진 2014 브라질 월드컵에서 조별 라운드 탈락의 악몽에 내몰린 바 있다. 그런 까닭에, 12년 전 아픔을 결코 되풀이하지 않겠다고 다짐을 거듭했건만 ‘세계의 벽’은 높기만 했다.

FIFA는 이번 월드컵부터 48개국 본선 체제를 도입했다. 이에 따라, 녹아웃 스테이지 첫판은 32개국이 출전했던 기존 대회 16강전과 달리 32강전이다. 4개 팀씩 묶인 각 조 상위 1, 2위 팀을 비롯해 조별 3위 12개 팀 가운데 상위 8개 팀이 32강전에 올라간다. 이때부터는 단판 승부로 승패를 가린다. 곧, 우승하려면 기존 4경기보다 1경기 많은 5경기를 치러야 한다.

첫 단추는 잘 끼웠는데...

대회 개막 전, 한국이 속한 그룹 A

2026 FIFA 월드컵 그룹 A조 성적

순위	국가	멕시코	남아공	한국	체코	승패	승점	골 득실		
								득점	실점	차
1	멕시코		2-0	1-0	3-0	3승	9	6	0	+6
2	남아공	0-2		1-0	1-1	1승 1무 1패	4	2	3	-1
3	한국	0-1	0-1		2-1	1승 2패	3	2	3	-1
4	체코	0-3	1-1	1-2		1무 2패	1	2	6	-4

순위 35계단 낮은 남아공에 쓴잔...1승2패 초라

2026 북중미 월드컵 부진...체질 개선 서둘러야

의 형세는 1강 3중으로 전망됐다. 32강 티켓 주인공으로 멕시코는 틀림없다고 보였다. 그리고 한국, 남아프리카공화국, 체코가 나머지 32강 티켓 1~2장을 놓고 3파전을 벌인다는 예상이었다. 다시 말해, 이들 3개국은 서로를 결선 티켓의 제물로 삼겠다는 전략을 구상했으리라는 시각이 지배적이었다.

그렇만했다. 객관적 지표라 할 만한 FIFA 랭킹(4월 1일 기준)을 봤을 때, 4개국 가운데 멕시코(15위)가 상당히 앞서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 뒤를 한국(25위)이 이었고, 체코(41위)와 남아공(60위)은 뒤쳐진 모양새였다. 이 예측은 맞아떨어졌다. 홈그라운드인 이점까지 안은 멕시코가 3승을 올리며 거뜬히 결선 티켓 1장을 가져갔고, 남은 3개국은 물고 물리는 혼돈의 ‘승점 사냥’을 펼쳤다(표 참조).

한국은 상큼하게 첫걸음을 내디뎠다. 체코에 2대1로 역전승하며 32강 반열을 향한 기분 좋은 스타트를

끊었다. 동점골과 역전골 어시스트를 수확한 황인범(페예노르트 로테르담)과 역전 결승골을 터뜨린 오현규(베식타시 JK)가 서전을 장식하는 데 두 주역으로 맹활약했다.

그러나 환호는 거기까지였다. 두 번째 판과 세 번째 판을 잇달아 내주었다. 멕시코와 남아공전에서, 0대1 분패가 거듭됐다. 32강 진입은 커녕 오히려 일찌감치 그룹 스테이지 탈락의 고배를 마셨을 뻔했다. 만약 체코가 멕시코를 꺾었다면, 최하위로 귀국길에 올라야 하는 아찔한 경우의 수도 있었다.

한국, 월드컵 본선 연속 진출은 세계 6위 ‘강호’

한국은 월드컵 본선 및 연속 진출 횟수에서만은 ‘절대 강호’라 할 만하다. 1954년 스위스 대회부터 12회나 본선 무대에 올랐다. 특히 연속 진출 부문에선, 세계 정상권이다. 1986년 멕시코 대회부터 이번 2026 북중

미 대회까지 연속 11회를 기록, 브라질(23회·1930 우루과이~)→ 독일(19회·1954 스위스)→ 이탈리아(14회·1962 칠레~2014 브라질), 아르헨티나(14회·1974 서독~)→ 스페인(13회·1978 아르헨티나~)에 이어 세계 6위의 기록을 자랑한다.

이 같은 기록과 관록을 바탕으로, 한국은 내심 북중미 월드컵에서 좋은 성적을 기대했다. 2002 한·일 월드컵 때 쓴 ‘4강 전설’ 재현은 어렵더라도, 2010 남아공 대회, 2022 카타르 대회에 이은 세 번째 원정 결선 토너먼트 진출을 노렸다. 그러나 2, 3차전에서 안타깝게도 멕시코, 남아공에 연패를 당했다.

2022년 카타르 대회에 이어 이번 북중미 대회에서도 위력을 보이고있는 일본 축구와는 달리 한국 축구는 한계를 보였다. 무엇보다 한국 축구의 부진은 이번 월드컵을 끝으로 자진 사퇴하는 정몽규 회장의 책임이 크다고 아니할 수 없다. 지난 13년간 한국 축구를 이끌면서 천안 축구센터 건립 등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는 평가도 있으나 한국 축구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에는 미흡했다는 지적도 없지 않다. 한국 축구는 이번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데에는 이의가 없을 것이다.☞

최규섭(한국체육언론인회 사무총장·스포츠 저널 코리아 편집인 & 편집위원장)



눈시린 파랑
무한대 하늘

칭기즈칸처럼
浩然之氣 불끈

높이 40m의 칭기즈칸 마동상 앞에서 포즈를 취한 필자. 하늘빛이 눈부시게 깨끗하다. (사진 제공=이규섭 본회 회우)

몽골 여행기

‘몽골은 볼 게 별로 없고 불편하다’는 풍문에 버킷리스트 후순위로 밀렸다. 최근 2박 4일 짧은 일정의 몽골 여행 여운은 깊고 진해 풍문의 반전이다.

드넓은 초원에 쏟아지는 별을 보고 대자연의 소리를 담은 ‘흐미(Khoomei)’를 들은 것만으로도 감동이다. 상상했던 것만큼 무더기로 빛나는 별은 아니어도 자정을 넘긴 게르 발코니에서 홀로 바라본 별무리는 명징한 아름다움이다. 은하수는 초원을 누비는 양떼처럼 흘러간다. 티끌 없는 파란 하늘에 총총히 빛나는 별을 보며 교과서에 실린 알폰스 도데의 단편소설 속 ‘별’의 주인공 목동이 떠올랐다.

가까이 할 수 없는 주인집 아가씨와 초원에서 별을 헤다 아가씨는 목동의 어깨에 기대어 살포시 잠이 든다. ‘밤 하늘에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빛나는 별 하나가 길을 잃고 내려와 내 어깨에 기대어 잠들었다’는 문장은 소설의 백미가 아니던가.

‘푸르공’타고 초원·구릉 누벼

분홍빛 외관의 간잠 팰리스(Ganzam Palace)극장에서 본 몽골민속공연에 깊은 울림을 받았다. 방송으로만 봤던 ‘흐미’를 직접 들으니 감동의 파장이 크다. ‘흐미’는 가수가 한 번에 두 가지 이상의 음을 동시에 내는 독특한 가창 기법으로 오묘하다. 광활한 초원을 스쳐가는 초록빛 바람소리 같기도 하고 양떼와 교감하는 영혼의 소리로도 들린다. 2009년 유네스코 인류문화유산에 등재됐다. 울림통이

덩치 큰 가수들보다 젊은 가객의 소리가 정교하고 꾸밈없어 좋았다.

‘흐미’는 몽골의 전통 현악기 ‘마두금(Morin Khuur)’을 만나 절묘한 앙상블을 이룬다. ‘마두금’은 ‘말머리 장식’이 달린 현악기라는 의미. 악기의 목 그트머리에 정교한 말 조각을 새겨 놓았다. 마두금 또한 자연을 닮은 소리를 낸다. 초원에 부는 바람소리나 말의 울음소리, 말발굽소리와 닮아 음색이 경쾌하고 정겹다.

힘은 인증사진으로 만족한다. 1960년대 러시아에서 만든 사륜구동 ‘푸르공’을 타고 테를지 초원과 구릉을 엉덩방아 찼으며 달린 건 이색체험이다. 감성과 오픈로드 분위기를 내며 차량 위에 올라 양손을 펼치고 젊은이 흥내를 내 본다.

높이 40m 칭기즈칸 기마상 위용

테를지국립공원 곳곳엔 게르 리조트 단지가 들어섰다. 일행이 묵은 게

발견한 곳이라는 전설이 서렸다. 칭기즈칸이 바라보는 곳은 그의 고향. 몽골 북부와 러시아 시베리아 접경지역 오논 강(Onon River) 유역이다. 말꼬리 부분 좁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면 말머리부분 전망대. 칭기즈칸이 호령했던 광활한 초원이 360도로 시원하게 펼쳐진다.

라이프 스타일 한국 닮아간다

몽골 면적은 한반도의 7.1배. 수도 울란바타르엔 몽골 인구 360만 명(2025년 통계)의 절반 가까운 150만 명이 산다. 도시가 복잡하고 교통체증이 일상화 됐다. 한국 편의점이 300여 곳 넘는다.

한국 대형마트가 입주하여 라이프 스타일이 한국을 닮아간다. ‘집승은 풀을 먹고, 사람은 풀을 먹고 자란 집승을 먹는다’던 몽골사람들이 상추, 시금치, 배추 등 채소를 즐겨먹는다. 유학도 한국 선호도가 높다. 거리와 공원에서 만나는 몽골인들은 “반갑습니다”는 한국말로 인사를 건넨다. 달군 돌로 익힌 몽골 전통 고기 찜 ‘허르헝’과 말고기 샤브샤브를 처음 먹어봤다.

주요 볼거리는 자이승기념탑과 칭기즈칸 광장. 자이승기념탑은 제2차 세계대전의 승리를 기념하여 전쟁 영웅과 전사자를 기리기 위해 세운 원형의 탑이다. 몽골 공산주의 시절의 역사라 찜찜하지만 울란바타르 시내를 한 눈에 조망할 수 있는 전망대 구실을 한다. 칭기즈칸 광장은 울란바타르의 심장. 광장을 중심으로 정부종합청사, 의회, 역사박물관, 국립오페라하우스, 몽골국립대학교 등이 몰려있어 관광객과 현지인들로 북적인다. ㉠

이규섭 본회 회우·전 사무총장

대자연의 소리 ‘흐미’ 가슴 뭉클 전통현악기 ‘마두금’과 환상 연출 게르서 초원 생활 독수리 등 체험 한국편의점 300여 곳 문전성시

몽골 여행의 짧은 일정 코스는 수도 울란바타르와 테를지국립공원. 시간과 돈을 더 투자하면 고비사막과 흙스굴호수 투어를 곁들이는 게 대세다. 테를지국립공원의 볼거리가 많지는 않다. 몽골의 샤머니즘을 보여주는 돌무지인 ‘어워.’ 우리나라 성황당과 비슷하다. 돌을 던지고 왼쪽으로 세 바퀴 돌며 소원을 빈다. 거북을 닮은 ‘거북바위’에 무병장수를 기원하는 것도 우리의 풍습과 닮았다. 아르야발 사원은 라마불교사원이다. 108계단 아래쪽은 폭이 좁고, 올라갈수록 넓어 부처님이 타고 다녔다는 코끼리 코를 형상화했다.

승마, 낙타타기, 활쏘기·독수리 체

르 리조트는 한국인이 운영하는 곳으로 100여채 넘는다. 관광객 유치 목적으로 지어 침대와 화장실, 샤워실을 갖췄다. 게르 앞에 펼쳐진 초원엔 말과 양이 한가롭게 풀을 뜯는다. 초원엔 허브 등 야생화와 한국에선 사라져가는 할미꽃이 지천으로 피었다.

테를지국립공원에서 울란바타르로 가는 길목에 칭기즈칸 기마상이 위용을 뽐낸다. 드넓은 초원을 배경으로 우뚝 솟은 거대한 은빛 기마상의 높이는 40m. 2006년 몽골제국 80주년 기념으로 건립을 시작하여 2010년에 완공한 최근의 볼거리다. 기마상이 위치한 천진벌덕 지역은 1170년 칭기즈칸이 이곳을 지나가다 황금 채찍을

마부가 되어 ‘茶馬古道’ 실크로드를 걷다

‘에어워커’의 세계 여행 ⑥

여행은 새로움에 대한 도전이자 즐거움이다.

특히 때묻지 않은 자연을 즐기며 자신의 체력을 테스트해 보는 것도 여행의 또다른 매력이다.

이번 호엔 14년 전 인터넷 카페에서 만난 트레킹 동호인들과 동서양을 오가던 상인들의 옛길 <茶馬古道>를 다녀온 이야기이다.

곤명(쿤밍)에 거주하며 중국 서북부 지방을 주로 안내하는 <준향오패투어>를 통해 5명의 소수정예 멤버들과 함께 추억을 쌓았다.

4월 3일

우여곡절 끝에 쿤밍행 비행기에 오른다. 하루전날 중국비자가 잘못돼 30여 만원의 거금을 들여 당일비자를 만들었다. 예전 여권으로 비자를 신청한게 화근. 그나마 출발 전에 발견한게 다행이었다. 난징을 경유하는 동방항공. 다시 중징에서 내렸다 뒀다하는 번거로운 일정을 무사히 통과하여 오후 늦은 시각 쿤밍공항에 도착했다.

춘빠와 마부를 만나 호텔로 직행. 피곤한 몸이지만 춘빠의 청에 따라 꼬치구이와 맥주 한잔으로 멤버들과 인사를 나누고 여행전반에 대한 소개를 받는다.

4월 4일

호텔 뷔페식사 후 웬모를 향해 출발. 토립에 들러 1시간 30분여 관람. 햇살이 따갑지만 자연의 신비에 놀라며 두루두루 흠이 빚은 밀림속을 걷다. 비라도 세차게 몰아치면 금방이라도 허물어질듯 약해보이는 흙무더기가 각종 조형물을 만들어냈다.

종유석 동굴이 햇빛 속에 모습을 드러낸 듯한 느낌. 중국식으로 점심식사를 하고 위먼으로 출발. 도중에 과일과 식수를 장만하다. 두 번째 묵은 호텔은 어문도 리조트. 조경뿐만 아니라 객실도 5성급 호텔에 뒤지지 않을 만큼 훌륭하다. 기대 이상의 호화판 여행인가?

4월 5일

4시간여 장거리 버스를 타고 이동. 루구호를 따라 달리다 모수족 가옥 탐방. 여자가 여러 남자를 거느리고 산다는 모계 중심의 소수민족. 여주인은 보이지 않고 남자는 풍채건장한 호남 스타일.



옥룡설산과 하파설산 사이의 깊은 골짜기에 위치한 호도협의 아찔한 트레킹코스.

돼지를 통째로 잡아 그 고기를 3~4년 말린다고. 집안에 고기가 널려 있는 풍경이 이채롭다. 군데군데 멋진 전망대에 올라 풍광을 관람하고 사진 촬영. 풍량이 심한 해변가의 빈관에 여장을 풀고 잠자리에 든다.

4월 6일

이른 아침 해뜨는 광경을 보기 위해 빈관을 나서다. 일출을 보고 사진을 찍으려는 관광객들이 북적인다. 바람은 잠잠. 우리 부부도 연달아 셔터를 눌러대며 멋진 해돋이 광경에 감탄!

하지만 전반적인 루구호에 대한 평가는 기대이하. 다음 행선지 리짱을 향하다. 윈난성에서도 12~13번째 도시인 리짱은 그래도 제법 큰도시임이

니었다. 드디어 하이라이트 호도협으로 이동. 도무지 차가 다니지 못할듯 싶은 언덕배기 길을 달려 옥룡설산 기슭의 마방에 도착. 이곳부터 트레킹 시작. 가이드와 예선 그리고 나를 제외한 4명의 멤버는 말을 타기로 결정. 10kg의 배낭을 메고 가파른 언덕길을 오르기 시작하다.

첫 번째 휴식지에서 결국 예선도 말에 오른다.

호흡도 가쁘고 다리에 기운도 빠지지만 오기로 28밴드까지 걸어 오르는 데 성공하다. 그 곳에서부터는 모두가 말을 돌려 보내고 걷기에 동참. 아찔한 벼랑길이 있어 순돌아빠가 조금 겁을 내긴 했지만 모두가 무사히 차마객

4월 9일

파리 고성으로 이동하여 2시간여 둘러보다. 세계 각국의 관광객들이 몰리는 곳. 구석구석 둘러보며 여유있는 시간을 갖다. 윈난성 커피도 구입하고. 점심은 맥도날드 비슷한 퓨전 음식점에 들러 고기와 각종 양념이 들어간 칼국수를 먹다. 제법 맛있다.

점심 후 낭만의 섬 남조풍정으로 이동하다. 3분여 배를 타고 들어가니 기가 막히게 멋진 풍광의 별장이 눈에 들어온다. <본원> 이곳에 거주하는 백족의 전통가옥이다. 방하나에 침대가 15개가 들어가 있다. 화장만 천체 혼숙이다. 샤워실도 없고 공동화장실이다. 그래도 운치가 있고 침대가 아늑하니 모두가 만족이다.

흥에 겨워 해변까지 나아가 밤늦도록 중국 곡주에 맘껏 취하다.

4월 10일

아쉬움을 뒤로 한채 섬을 나서다. 전날 숙취 탓에 얼하이 해변가 산책은 맘속에 담아두고 한껏 녹장을 부린다. 쿤밍으로 돌아오는 길은 피로가 쌓인데다 고속도로가 막혀 일반도로로 돌아 오는 등 자칫 짜증이 날 뻔했지만 초화판 사우나에서 날려버린다. <수세계>라 이름붙은 사우나는 시설도 클뿐아니라 서비스도 일품이다. 간단히 몸을 씻고 뷔페식당에서 각종 음식을 맛나게 먹고 발마사지를 받고 안락의자에 누워 실컷 잠도 자고 9일동안 쌓인 피로를 말끔히 씻어낸다.

깊은 잠이 들기직전 밤 10시 50분. 다시 차를 타고 공항으로 향하다.

새벽 2시 10분 인천행 비행기에 몸을 싣으니 차마고도 7박9일 일정도 마침내 종착역에 다다랐다. ㉠

박진환 (J & J 미디어 대표·본회 회우)

호도협 코스 벼랑길 아찔...옥룡~하파 雪山 저멀리에

호흡 헉헉 다리 힘도 빠져...쿤밍 리짱 古屋 실컷 구경

분명하다. 도심을 가로질러 옥룡설산을 향해 달리다 수허구전에 도착. 집을 풀고 수허구전을 둘러보다. 전주 한옥마을보다 훨씬 복잡한 느낌이다. 각종 가게가 어지럽게 널려있고 중심엔 호수공원(?)이 자리하고 있다.

가물치 샤브샤브로 저녁식사 후 도로공사로 도심 한복판이 마비상태인 리짱 한복판을 헤집고 리짱고성에 진입하다. 중국 인구가 얼마인지 새삼 깨닫게 해주는 번잡한 거리를 방향하다 밤 10시 넘어 빈관으로 돌아오다.

4월 7일

이른 아침 수구허전 아침 산책 나섰다. 길을 잃고 헤매다. 가까스로 예선(안내인)을 만나 일행과 합류. 다행히 일정에 차질을 빚을 정도는 아

잔까지 걷다. 도중 나시객잔서 라면과 밥으로 점심을 때우고 저녁식사는 오골계 백숙. 안나푸르나 루지에 비하면 이곳 객잔은 5성급 호텔이다.

4월 8일

호도협 트레킹 2일차. 3시간여 걸어 중도객잔에 도착. 중도에서 일행중 3명은 대리운전 기사와 더불어 차를 타고 내려오고 나머지 4명은 걸어서 내려오다. 점심식사 후 사시마로.

여행 안내서에도 단 4줄만 기재돼 있는 별로 알려지지 않은 마을이다.

수백년전 가옥이 잘 보존돼 있는 곳으로 소수의 관광객만이 찾는 곳.

이곳에서 회족이 즐겨먹는 쇠고기 샤브샤브로 저녁식사를 마치고 대만 여인이 경영하는 찻집에 들러 윈난성 커피와 아이스크림 등으로 후식.

어르신 취업! 청년 기회 보장돼야 순풍



전익식

본회 이사·편집위원
전 서울신문 부국장

요즘 시중에 웃고 싶어도 웃을 수 없는 조크 하나가 등장했다. “청년은 오늘도 쉬고 노인은 오늘도 일하러 간다”라는 자조적인 목소리다. 경제 불황, 이란 전쟁 등 이런저런 이유로 젊은이들은 취업 문이 좁아져 백수 신세로 세월을 보내고, 세상일에서 손을 놓고 쉬어야 할 저소득층 노인들은 시간제 일당을 벌기위해 바빠 출근하는 장면을 묘사한 것.

하지만 앞으로는 더한 취업난이 청년들 앞에 닥칠 것으로 예상된다. 삼성전자 노조의 파업 위협으로 경계심이 부쩍 늘어난 국내 기업들은 생산공장의 인력을 대체할 자동 로봇 배치를 구상하기 시작했고, 정치권은 노동 단체의 요구를 받아들여 현재의 법정 정년 60세를 단계적으로 늘려 65세로 상향시킨다는 방안을 추진하기 때문이다.

최근 민주당 정년연장특별위원회는 2028년부터 2036년까지 격년으로 근로자의 정년을 1년씩 연장하여 마지막 해에 5년 연장을 완성한다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 절반을 훌쩍 넘는 국회 의석을 지닌 민주당이라 근로자 단체, 기업과의 합의만 이뤄지면 법안 개정은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평균수명이 80세를 넘어선 장수 시대에 근로자의 정년 연장은 어쩌면 피할 수 없는 시대적 흐름으로 봐야 한다. 의학의 발달로 ‘환갑은 청춘’이라는 말이 당연시되는 현실인데 경험과 숙련도가 정점에 달한 고급 노동력을 단지 60세가 넘었다는 이유로 일터 밖으로 내모는 60세 정년 제도는 분명 시대착오적인 형태다. 그래서 정년연장특위는 근로자의 이러한 애로사항을 수용하여 충격 완화용 시간차 정년 연장안을 마련한 것이다. 하지만 10년 후에 65세로 완성될 정년 연장이 모든 세대에게 행복만을 안겨줄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자칫하면 노동시장과 기업, 그리고 세대 간 관계에 상당한 변화를 불러올 수 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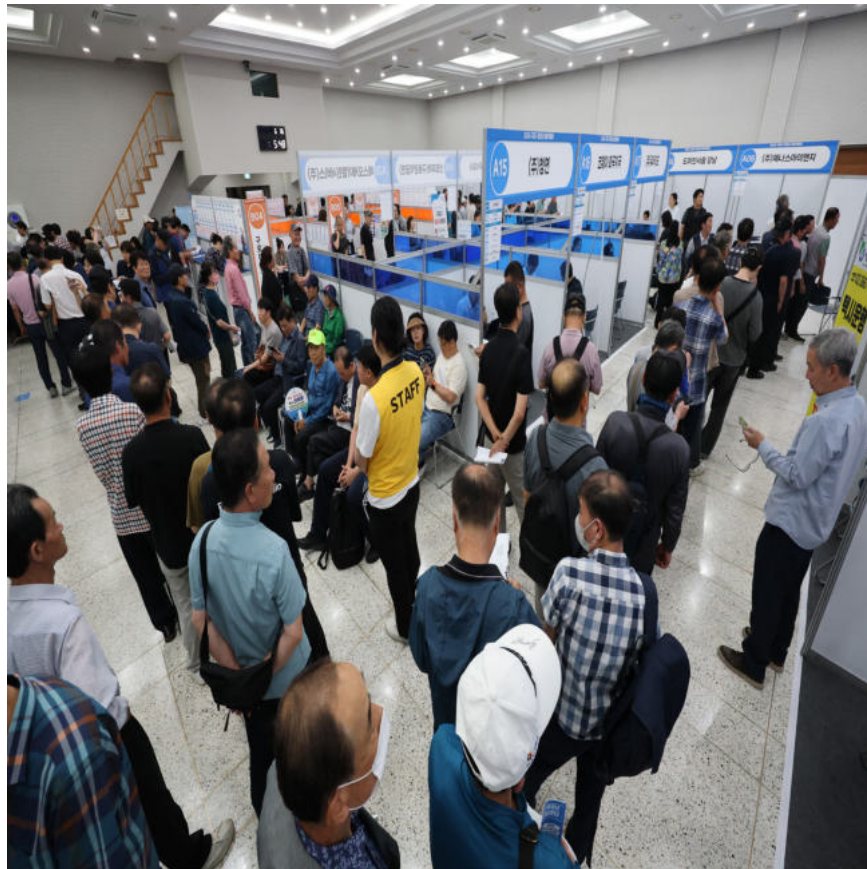
우리 사회가 정년 연장을 논의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인구의 고령화 때

문이다. 현행 65세로 정해진 국민연금 수급 시기는 5년이나 기다려야 하는데 인간의 수명도 계속 늘어나고 있다.

대다수 근로자들은 60세에 퇴직한 뒤에도 최소 5년에서 10년 이상 경제 활동을 해야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현실에 부딪힌다. 그래서 오랜 경험과 숙련을 쌓은 근로자들이 더 오래 일할 수 있다는 점은 개인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인적 자원의 활용이라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이다.

이렇듯 정년 연장 주장이 강조하는 취지는 그럴듯하지만 이런 움직임이 가져올 사회적 파장은 적지 않을 것이다. 당장 기업과 사업체들은 고령화되는 직장이라는 현실을 마주해야 하고 특히 AI 시대가 다가온 지금으로서는 기술혁신의 속도가 조직의 역동성을 저하할 수 있다는 우려도 등장하고 있다.

그보다 더 큰 문제는 비용과 세대 갈등이다. 기업의 대다수는 근속연수



6월 16일 서울 구로구청에서 열린 채용박람회를 찾은 구직자들이 취업 상담을 받기 위해 줄을 서 있다. (연합뉴스 제공)

65세 정년연장 불가피...고령층 빈곤 악순환 막아 세대간 일자리 갈등 심각...사회적 합의 우선돼야

가 높을수록 임금이 자동으로 올라가는 호봉제를 택하고 있어 고령 노동자의 정년 연장은 적지 않은 재정적 부담이 된다. 높은 급여를 받는 50대 후반 간부급 사원의 정년이 5년이나 늘어난다면 기업이 선택하는 쉬운 방식은 신입 직원의 머릿수를 줄이는 것이다. 따라서 기업이 미래를 위해 육성해야 할 젊은 피 수혈을 축소하거나 아예 외면하는 경우도 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부모 세대의 취업 기간 연장이 자녀 세대의 취업 문을 닫아서는 형태로 나타난다면 기성세대와 젊은 세대의 감정적 골이 생기지 않으리라는 보장도 없고, 자칫하면 노동시장의 이중 구조라는 문제도 등장할 가능성도 있다. 즉, 정년 연장은 강력한 노조의 보호를 받는 대기업의 일부 근로자에게 집중되고 일당제 근로자나 계약직 비정규직 근로자에게는 먼 나라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다.

현실을 말하자면 60세 정년제에서도 기간을 제대로 충족하고 나오는 근로자는 공기업, 공무원, 교사직과 노조가 강한 일부 제조업에 집중되어

있다.

과거 중소기업이나 비정규 근로자는 물론 언론사, 금융사를 비롯해 일부 대기업도 자진 퇴사, 명예퇴직이라는 명목으로 고령의 직원을 정리하는 편법이 횡행하였는데, 법적 정년만 늘린다해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가 해소되기는 어렵다. 또 다른 문제로는 조직 내 인사 적체가 꼽힌다. 선배 세대의 퇴직이 늦어질 경우 자연히 승진과 보직 이동이 정체될 수 있다. 이는 젊은 세대의 조직 만족도를 떨어뜨리고 기업의 활력을 저하할 우려가 있고 더 나아가 직장 내 세대 갈등이 깊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렇다면 정년 연장은 어떻게 추진되어야 무리가 없을까. 우선 2028년부터 2036년까지 8년간의 유예기간은 단지 시간을 버는 기간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근로자의 복지를 위한 정년 연장이 사회적 재앙이 아닌 축복이 되려면, 기업의 유연성과 청년세대의 기회를 보장하는 조건이 우선적으로 전제되어야 한다.

지금도 일부 기업에서 정년 퇴직자를 계약직으로 일시 고용하여 적은

비용으로 인력을 활용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 것처럼 나이가 아닌 성과와 역할에 따라 보상하는 직무급제로 전환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지금껏 말로만 이어온 임금 피크제의 법제화도 이뤄져야 한다.

마지막으로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인건비 지원, 고용 유지 지원금, 사회보험 부담 완화 등 현실적인 지원책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5년이라는 정년 연장은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에 또 다른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정치권이 앞장선 정년 65세 연장은 단순히 퇴직 시기를 늦추는 문제가 아니다. 이는 노동시장 구조와 세대 간 관계, 국가 경제의 미래를 함께 고민해야 하는 거대한 사회적 과제이다.

고령층의 생계 안정과 청년층의 미래 기회가 서로 충돌하지 않도록 균형 있는 정교한 설계가 필요하다. 역대 정부가 실현하지 못한 65세 정년안이 성공하려면 어느 한 세대의 이익만이 아니라 모든 세대가 공존할 수 있는 사회적 합의가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 ☐

김삿갓, ‘역적의 후손’ 치욕 떨치려 방랑

황원갑의 史談史話



황원갑
본회 회우
소설가·역사연구가

김삿갓이 누군인지 모르는 사람은 없다. ‘죽장에 삿갓 쓰고 방랑 삼천리...’ 하는 유행가가 나온 지도 이미 70년이 넘었다. 이처럼 김삿갓이 술한 전설과 일화를 남기며 방랑하던 풍류시인이라는 사실은 널리 알려져 있지만, 아직도 그의 본명을 모르는 사람이 많고, 더군다나 그가 언제 어디에서 태어나 어디에서 살다가 무슨 까닭에 한평생 방랑을 했으며, 언제 어디에서 세상을 떠나 어디에 묻혔는지 모르는 사람은 더욱 많다.

삿갓으로 하늘을 가리고 죽장 짚고 미투리 신고 한평생을 떠돌아다닌 천재시인 김삿갓, 풍자와 해학과 기지로 어우러진 과격적 시풍(詩風), 보통 사람들의 예상을 뛰어넘는 기행(奇行)으로 가는 곳마다 전설을 남기고 사라진 방랑시인 김삿갓, 그는 바람처럼, 구름처럼, 물결처럼 이 땅의 산수와 저자 간을 마음대로 넘나든 영원한 자유인이요, 풍류가객이었다.

김삿갓이 평생을 해학과 풍자로 방랑하던 풍류시인이며 기인이었다는 사실은 누구나 알고 있지만 한 점 뜬 구름 같고 한 줄기 바람 같았던 그의 기구하고 불행했던 한 삶의 자취를 똑똑히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 만큼 그의 일생은 널리 알려진 명성과는 달리 신비에 싸여 있어 강원도 영월 땅에 그의 일가가 숨어살던 집터가 있고, 김삿갓의 묘도 그 근처에 있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도 44년 전인 1982년 10월이었다.

이는 오로지 영월의 향토사학자였던 고 박영국(朴泳國)씨의 오랜 현장 답사와 자료를 통한 연구의 결실이

었다. 박씨는 1974년부터 김삿갓의 발자취를 추적하기 시작하여 1982년 10월에 마침내 영월군 하동면 와석1리 노루목에서 김삿갓의 묘와 어둔리 선락골의 집터를 찾아냈을 뿐 아니라, 그 뒤 1994년 세상을 뜰 때까지 사재까지 털어가며 김삿갓 유적지 보존운동을 벌이고, 곳곳에 묻혀 있는 김삿갓의 미공개 시와 일화를 발굴해내는 데에 심혈을 쏟았다.

필자가 박씨와 함께 처음으로 김삿갓 묘와 집터를 답사한 것은 한국일보 기자였던 1984년 여름이었다. 그때 이미 오래 전에 폐가가 되어버린 김삿갓의 집터에서 그의 어머니와 부인과 며느리 등 여인 3대가 눈물과 한숨을 섞어 곡식을 뺨았을 디딜방아를 발견하여 가슴 뭉클했던 기억이 새롭다. 또 그날 영월군청에서 지프를 빌려 김삿갓 유적을 찾아가는데, 너무나 산길이 험악해 머리에 흑이 여러 개 생겼던 것도 추억으로 남아 있다. 지금은 그때 길 같지도 않던 7km의 진입로가 매끈한 아스팔트 포장길로 변했고, 지명도 하동면에서 김삿갓면



강원도 영월군 김삿갓계곡에 있는 김삿갓문학관 전경.

조부가 흥경래난 때 반란군에 항복...집안 완전히 몰락 詩 풍자 해학 기행 등 전설로...영월서 집터 묘지 발견

으로, 골짜기 이름도 와석리계곡에서 김삿갓계곡으로 바뀌었으니 상전벽해가 따로 없다는 느낌이다.

1984년 김삿갓의 일대기를 쓴 뒤 나는 언젠가는 그의 전기소설을 한번 쓰리라 마음먹었다. 그래서 2018년 김삿갓 전기소설 <김삿갓>을 써서 펴냈다. 이를 위해 영월의 김삿갓 유적을 다시 여러차례 찾았고, 김삿갓의 출생지 양주군 회천면 회암리, 그의 고손자가 사는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까지 두루두루 찾아다니면서 취재를 했다. 김삿갓의 4대손, 고손자 김석동(金錫東)씨는 다방을 하고 있었다. 그의 아버지, 김삿갓의 증손자는 일제 때 이곳 양평에서 양조장을 해서 많은 돈을 벌었고, 어려운 이웃을 위해 좋은 일도 많이 하여 공덕비도 세워졌다고 한다. 아무래도 김삿갓 일가와 물(술)은 떼려야 뗄 수 없는 천생연분인가보다.

“당신 고조부는 평생 방랑하면서 술을 얻어 마셨고, 당신은 한 자리에 앉아 물을 파는구려!” 내가

그렇게 말해 돌이켜 한바탕 웃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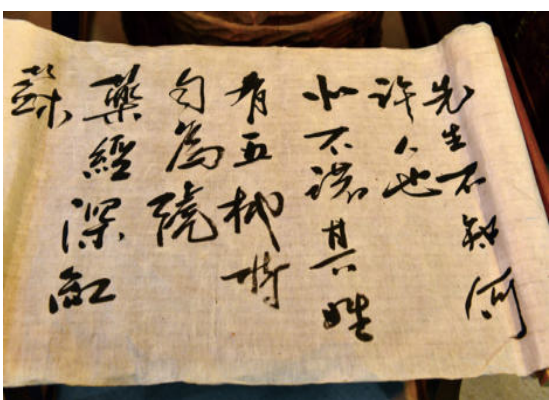
김삿갓은 무슨 까닭에 방랑시인이 되어 고달픈 심신을 이끌고 이 땅의 산굽이며 물줄기를 이리저리 휘감아도는 풍류행에 나서게 되었을까.

평안도 용강에서 흥경래(洪景來)가 썩은 세상 둘러엮고 새 세상을 만들겠다며 무리를 모아 떨쳐 일어난 것은 순조 11년(1811년) 조선왕조 개국 이래 23왕 418년 동안 내내 멸시당하고 천대받아오던 서북 사람들의 원한과 울분이 마침내 흥경래라는 당년 32세 젊은 혁명가의 영도아래 활화산처럼 무섭게 폭발한 것이었다. 당시 김삿갓의 조부 김익순(金益淳)은 선천부사 겸 방어사였다.

흥경래군이 인근 고을을 휩쓸고 선천에 쳐들어왔을 때 김익순은 반란군에게 항복하고 비굴하게 목숨을 구걸했다. 그러나 그것은 잠시 더 살아보려다 영원히 욕된 이름을 남긴 셈이 되었다. 이듬해 봄, 난이 평정되자 김익순은 모반죄로 처형당하고 그의 집안은 완전히 몰락했다. 이것이 미완의 정치적 혁명가 흥경래와 문학상의 혁명적 이단자 김삿갓 사이에 얹힌 비극적 운명의 사슬이었다.

불행 중 다행으로 일가는 당대의 세도가문 안동 김씨인 덕분에 부계·모계·처계 등 삼족을 멸하는 화는 면했지만 역적의 자손이라 고향에서 살아갈 수가 없었다. 그때 김삿갓은 겨우 여섯 살짜리 철부지였다. 김삿갓의 본명은 김병연(金炳淵). 순조 7년(1807년) 3월 15일에 김안근(金安根)과 함평 이씨 사이의 둘째 아들로 태어났다. 형은 병하(炳河), 아우는 병호(炳湖).

문중에서는 역적이 났으니 가문의 치욕이라면서 족보에서 지워 없앤다는 소리가 나왔고, 그런저런 이유로 쌓이고 쌓였던 수치심과 분노가 울화병이 되어 아버지는 39세 젊은 나이에 죽고 말았다. 막내 병호도 죽어버렸다. 37세에 과부가 된 어머니는 두 아들을 데리고 경기도 가평을 거쳐 강원도 두메산골로 들어가 평창 미탄에서 조금 살다가 다시 영월 삼옥리로 이사했다. 병하와 병연 형제가 장가를 든 곳이 바로 이곳이고, 김삿갓이 방랑을 떠난 곳도 바로 이 영월 땅이었다. 그런데 안동 김씨 족보를 살펴보니 공공로게도 두 형제가 모두 연상의 황씨에게 장가든 것으로 나온다. 형 병하의 부인은 두 살 위인 창원 황씨요, 병연의 부인은 한 살 위인 장수 황씨였다. 병연이 장가든 것은 그의 나이 16세 때였다. ㉠



김삿갓의 친필.

난중일기에 ‘원균 비난·분노’ 120여곳

교과서에 안 나오는 충무공 이순신 장군 秘史 ④



김동철

본회 이사
이순신인성리더십포럼 대표

원균은 이순신 장군이 7년 동안 쓴 난중일기에 120여 차례나 언급되어 있다. 계사년(1593년)에 49회, 갑오년(1594년)에 46차례나 집중되어 있다. 이때는 임진왜란 초기 3년간이다. 대부분 원균의 뒤통수만 치고 치졸한 모습에 대한 비난과 분노가 주를 이룬다. “음험하고 흉악한 품이 이루 말할 수 없다.” 또는 “의논에서 원 수사가 하는 말은 매번 모순이다. 참 가소롭다.”라는 표현까지 나온다.

1593년 경상우병사 최경회의 말에 따르면 명(明)의 경략 송응창(宋應昌)이 자신에게 보낸 1,530대의 불화살을 원균 혼자서 다 쓰려고 계책을 꾸미기도 했다. 이순신에게 날 밝는대로 나가 왜적과 싸우자고 공문을 보내놓고 다음 날 이순신이 왜적을 토벌하는 문제에 대해 공문을 써서 보내자 취기에 정신없다고 핑계를 대며 답하지 않았다.

이밖에 술에 취해 헛소리를 하더라는 등의 비난도 있다. 또한 도원수 권율(權慄)의 질책 앞에서 머리도 들지 못하는 원균의 모습을 두고 우습다고 비웃거나 매도(罵倒)에 가까운 비난을 숨기지 않았다. 심지어 어머니상을 당했을 때 문상을 보낸 것과 관련, “음흉한 원균이 편지를 보내 조문한다만 이는 도원수의 명이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원균에 대한 감정의 골은 깊었다.

1592년 4월 13일 임진왜란이 발발하자 경상우수사였던 원균은 전라좌수사인 이순신에게 긴급지원요청 SOS를 쳤다. 이순신은 조정에 경상도로 진출할 수 있도록 하는 부원경상(赴援慶尙) 장계를 올렸다. 조정의 출정 명령이 떨어진 5월 4일 여수를 출발, 5월 7일 거제도 옥포에서 첫 전투를 했다. 그런데 경상우수영의 전선이 거의 없었다. 왜군이 육로로 오아포(거제도 가배량)로 쳐들어오자 원균은 우수영 병영 및 성 내외 민가에 불을 지르고 정박중인 병선 73척을 파괴, 잇따라 침몰시켰다. 이른바 청야(淸野) 작전이었다. 그리고 남은 판옥선 4척, 협선 2척을 타고 소비포(고성

군 춘암리)에서 기다리고 있던 이순신 수군과 합류하여 옥포해전에 참전했다. 전투가 끝난 뒤 원균은 적의 수급을 베어서 공적으로 삼는데 열중했으나 이순신은 적을 사살하는데 더 중점을 두었다.

5월 13일 맑음. 검모포 만호가 보고하기를 “경상 우수사에 속한 포작(어부)들이 격군(노꾼)을 신고 도망하다가 붙들렸는데 포작들은 원 수사가 있는 곳에 숨어 있습니다.”라고 하였다. 사복(무사)들을 보내어 붙잡으려 하였더니 원 수사가 크게 화를 내면서 사복들을 결박하였다고 한다. 그래서 노윤발을 보내어 풀어주게 하였다. 밤 10시 쯤부터 비가 내렸다. 6월 초4일 맑음. 충청 수사, 미조항 첨사 그리고 웅천 현감이 보러 왔다. 승경도(陞卿圖 벼슬) 놀이를 하게 하였다. 저녁에 겸사복(兼司僕 임금의 호위무사, 정2품)이 왕의 분부를 담은 유서를 가지고 왔다. 그 글 가운데 “수

충무공 “元 음험하고 흉악 가소로워” 류성룡도 일침…권율은 곤장형 조치

군 여러 장수와 경상도의 장수가 서로 화목하지 못하니, 이제부터 예전의 나쁜 습관을 모두 바꾸라”는 말씀이 있었다. 통탄스럽기 짝이 없었다. 이는 원균이 취하여 망발을 부렸기 때문이다.

원균이 이순신과 비교 대상이 될 때 항상 불리한 위치에 놓이는 것은 처신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다. 1593년 7월 15일 전라좌수사였던 이순신은 여수의 진영을 한산도로 옮겼다. 이순신은 그곳에 운주당(運籌堂)이란 작전통제소를 지었다. 운주당은 운주유악(運籌帷幄), 즉 ‘장막 안에서 작전을 짚다’는 뜻에서 따온 이름이다. 운주당은 오늘날 제승당(制勝堂)이 되었다.

다음은 류성룡(柳成龍)의 징비록에 나오는 대목이다.

“원균은 좋아하는 점을 데려다가 그 집(운주당)에서 살며, 이중으로 율타리를 하여 안팎을 막아 놓아서 여러 장수들도 그의 얼굴을 보는 일이 드물었다. 그는 술 마시기를 좋아하여 날마다 술주정과 성내는 것을 일삼았



KBS드라마 ‘불멸의 이순신’에서 이순신 장군(왼쪽 김명민 분)과 상대역 원균(최재성 분).

고, 형벌에 법도가 없었으므로 군중에서 수군거리기를, ‘만일 왜적을 만난다면 오직 도망가는 수가 있을 뿐이다.’라고 여러 장수들은 몰래 그를 비웃었다. 또한 다시 품의하거나 두려워하지도 않았으므로 호령이 행해지지 않았다.”

이렇듯 현장 지휘관으로서 체통과

병선이 수장되었다. 이때 전라우수사 이억기, 충청수사 최호 등 정3품 고급 지휘관들이 전사했고 1만여 명의 수군은 죽거나 뿔뿔이 흩어지고 말았다. 한 장수의 분별심을 잃은 화(anger)가 조선 수군의 궤멸이라는 거대한 위험(danger)을 초래한 것이다.

이순신과 원균은 서로 다른 점이 많았다. 우선 출신 성분부터 달랐다. 나이로 보면 원균이 다섯살이나 많았고 무과급제도 11년이나 빠른 대선배였다. 게다가 원균의 아버지는 병마절도사를 지낸 원준량으로 무인 집안이었지만 이순신의 할아버지 이백록(李百祿)은 1519년 조광조의 기묘사화에 연루되어 ‘역적’이란 꼬리표를 달고 살았다. 아버지 이정(李貞)은 관직에 나아가지 않고 초야에 묻혀 칩거했다.

이순신은 1592년 5월 7일 옥포 해전 승리로 가선대부(종2품)로 승진, 6월 2일 당포해전 승리로 자헌대부(정2품 하계), 7월 8일 한산도대첩으로 정헌대부(정2품 상계)로 연이어 승진했다. 그 이듬해 8월 15일에는 삼도수군통제사(종2품)로 임명됐다. 그런데 원균은 언제나 한 단계 아래 품계에 머물렀다. 두 사람 사이에 사사건건 마찰이 있자 선조와 조정은 원균을 육군인 충청병마절도사, 이어 전라우병사로 전출시켜 떼어놓았다. 그런데 이순신 장군이 왕명거역으로 1597년 2월 26일 삭탈관직된 뒤 한양으로 압송되자 원균이 그 후임 통제사가 되었다.

조정에서 동인 세력이 강했을 때 영의정 이산해, 우의정 류성룡 등에 의해 이순신은 비호(庇護)되었고 원균은 서인인 좌의정 정철과 윤두수-윤근수 형제의 목소리가 커졌을 때 두호(斗護)를 입었다. 당쟁 또한 두 사람의 사이를 갈라놓게 했다.☐

체면이 말이 아니었다. 상하좌우 혼연일체가 되어도 힘겨운 마당에 패전(敗戰)은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도원수 권율은 1597년 7월 11일 부산포 공격을 주저하는 원균을 불러 곤장을 쳤다. 도원수는 현역 군최고봉인 합참의장이고 원균은 삼도수군통제사, 즉 해군참모총장인데 곤장형을 가했다니 어지간히 화가 났던 모양이다.

“통제사 원균이 전진하려 하지 않고 우선 안골포의 적을 먼저 쳐야 한다고 하지만, 수군의 여러 장수들은 이와는 다른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고, 원균은 운주당 안으로 들어가 나오지 않으니, 절대로 여러 장수들과 합의하여 궤하지 못할 것이므로 일을 그르칠 것이 뻔하다.”(징비록)

원균이 역사적으로 저평가되는 이유 중 가장 큰 것은 1597년 7월 16일 칠천량 해전에서 패했기 때문이었다. 그때 조선 수군은 거의 궤멸했다. 선조와 도원수의 출전 재촉에 등 떠밀린 원균은 와키자카 야스하루(脇坂安治) 등 일본 수군의 기습으로 160척의



문신미술상 본상 받은 심영철 작가를 만나고

“
宇宙·생명을
설치미술로
환원했지요
”

창원특례시는 2026년 문신미술상 본상 수상자로 심영철(沈英喆·서울 출생) 작가를 선정, 시상했다. 문신미술상은 세계적인 조각가 문신의 예술 정신과 창작 활동을 기리기 위해 제정된 상으로, 올해로 25회를 맞았다.

‘환상의 정원에서 세상을 보다’의 주인공 심영철은 대한민국의 설치미술가이며 수원대 조형예술학부 명예교수로 개인전 36회(국제전 10회), 단체전 250여회 이상(국제전 23회)의 왕성한 활동으로 K-컬처의 파워를 세계에 펼쳐보이고 있다.

그의 주요 작품들은 예술의전당, 워커힌호텔, 63빌딩, 뉴욕제과, Assem Tower Business center, 인천국제공항공사 미국, 프랑스, 스페인, 포르투갈 등에 소장돼 있다. 그를 직접 만나 신비 속 심연의 세계를 들여다 보았다.

꿈은 누구나 꿀 수 있다. 그러나 그의 인생 절정의 꿈은 일찍 백남준을 보았을 때 시작된 것이 아닌가 싶다. 그의 빛으로의 열망과 식지 않는 삶의 열정이 마치 오르막길을 인도하는 북극성 같이 그의 머리위로 빛나고 있었다. 한계를 넘어서야 하는 격렬한 고통의 순간에서 가장 심심한 생성의 에너지를 느꼈다면 숨이 턱에 걸리는 극한의 상황을 이겨 낸 후

심연에서 차오르는 신비한 성취감이야말로 그의 삶을 밝혀주는 찬란한 빛이 아니었을까. 우리가 천재를 보았다.

그는 늘 새로운 우주를 만나는 일을 꿈꾼다. 그에겐 아직도 만나야 할 새로운 창조의 신비가 펼쳐져 있다. 한국 설치미술을 대표하는 심영철 작가의 문신상 수상을 축하하러 갔다가 미처 예상치 못한 충격상태에서 머리에 떠올린 상념들이다.

필자가 언론인으로 그리고 대학에서 교수로 강단에 섰던 무렵에도 가장 만나고 싶었던 인물이 바로 심영철 교수였다. 같은 캠퍼스내에서 각자 활동을 했지만 그는 마치 외계의 별처럼 높은 하늘에서 반짝이고 있었다.

심영철 작가는 어릴 적 백남준의 작품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 그의 눈에는 백남준이 추구하는 그 빛과 창조의 세계가 보였다.

얼핏 단순하게 보일 수 있는 진화과정 같지만 심영철의 창작세계에는 큰 덩어리로 토목·건축은 물론이고 정치, 경제, 미술, 과학, 수학, 음악, 무용, 스포츠에 이르기까지 모든 복합적 요소가 내재돼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런 물음을 던졌다. 예술가인가, 기업인인가, 사상가인가, 무한 저돌자인가, 천재인가.

참으로 심영철작가의 존재가치를 돋보이게 하는 것은 그의 순수한 인생관과 우주생성의 비밀을 캐내려는 열정, 내일을 보는 혜안, 명예와 정도를 추구하는 예술혼일 것이다.

심 작가는 지난 40여 년간 그만의 ‘가든 시리즈’를 통해 인간 존재와 감각의 성소를 구축해 왔다. 빛과 물 그리고 향기와 음향으로 축조된 대형 설치 구조물을 선보였다. 작가는 이 공간을 ‘어머니의 자궁’



자 무수히 생성, 소멸, 변화하는 우주’에 비유했다. 관람객이 구조물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수천 겹으로 증식된 자신의 모습과 마주하며 우주의 주체로 유평하는 환상, 작가의 GARDEN(정원)은 한순간 정적인 풍경이 아니라, 자아와 세계가 끊임없이 반사되고 확장되는 살아있는 공간이 된다.

그는 2026년 신작으로 춤추는 정원 ‘Dancing Garden’을 발표했다.

신작 ‘춤추는 정원’은 AI 비전 기술을 도입한 것으로도 특별하다. 전시장에는 관람객의 시선, 표정 변화, 체류 시간과 동선을 분석하는 시스템이 작동하며, 예술적 몰입 경험을 정량적 데이터로 기록한다. 이는 ‘설치미술이 인간의 정서에 미치는 영향’을 과학적으로 검증하려는 시도로, 약 400명 이상의 설문과 3,000건 이상의 행동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실증 연구가 병행된다. 예술이 감상의 영역을 넘어 연구와 학술의 장으로 확장되는 실험적 현장으로 특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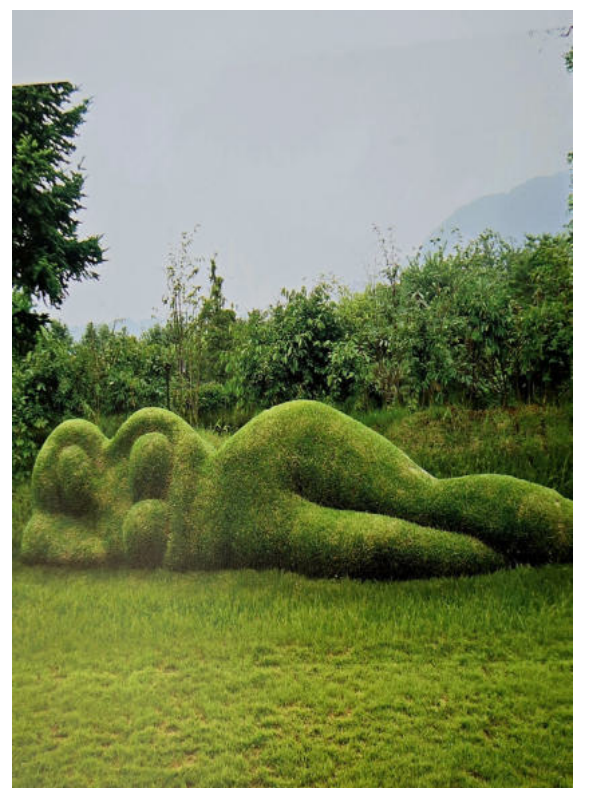
일찍이 춤을 전공했던 작가는 작품 속에 춤추는 꽃으로서의 자신을 투입하기도 한다. ‘보여주는 예술에서, 증명하는 예술로 나아가는 전환점’이기도 하다.☞

전인하 (본회 회우·전 MBC 방송뉴스국장)



자신도 창조의 일부가 되어 ‘춤추는 정원’에 들어선 심영철 작가.

40여 년 ‘가든시리즈’ 열며
인간의 존재 소멸 집중탐구
전시 300여회 예술혼 활활





막 뽑아 막 만들어 막 먹는 진미

맛 순례 ⑥

춘천 '쌈밥 막국수'

강원도 춘천 막국수, 메뉴 자체는 심플하고 간단하다. 100% 순메밀 국수, 후춧가루 곱빼기에 편육, 보쌈, 감자전, 메밀전, 녹두전, 섞어진, 모두 부, 덩으로 순메밀사리... '천하별미'로 매일 매일 즐겁게 먹을 수 있도록 정성을 가득 담은 쌈밥 정식 구성에 누나.

'막국수'하면 강원도 춘천을 떠올리는 이유는 막국수로 유명한 지역답게 오랜 전통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그중에서도 주목받는 곳이 '쌈밥막국수'다. 국산 메밀로 빚은 면을 사용해, 툭툭 끊기는 맛이 부드럽다. 감자전, 돼지고기 보쌈도 빼놓을 수 없다.

여기에서가 새우, 새송이버섯, 고기산적, 호박과 생선전 등을 부쳐낸 모듬전도 감미롭다. 양념장도 맛있고, 따로 주는 시원한 동치미 육수도 정갈하고 감칠맛이 있다. 그 보다는 가장 맛있는 건 막국수 위에 올려주는 보쌈이다. 보쌈에 막걸리 한 잔을 기울이면 신선(神仙)이 즐겨 먹었다는 천하일품 신선음식(新鮮飲食) 진미가 넘쳐난다.

심플한 대중음식으로 인기

단순히 절미음식으로 유명한 곳이 아니라 오랜 기억이 담긴 명소라는 점에서 더욱 특별하게 다가온다. 이러한 배경 덕분에 막국수하면 춘천 '쌈밥'을 찾는 사람들이 사계절 줄을 잇는다.

순메밀면 특유의 고소한 풍미가 넘치고, 양념과의 조화가 뛰어나며, 특히 육수와 비빔 양념의 밸런스가 잘 잡혀 있어 담백함을 더해 주면서 취향에 따라 다양하게 즐길 수 있다는 점이 매력적이다. 품질과 맛을 최우선으로 화려함보다는 편안함을 안겨주는 식사 공간, 자연스럽게 식사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다. 그래서 가족단위, 나들이 단체손님, 단골 식객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꾸준히 찾아온다.

오랜 전통 속에서 맛과 추억이 함께 담긴 공간, 쌈밥집은 춘천을 대표하는 막국수집이다. 이효석의 <메밀꽃 필 무렵> 무대인 강원도 평창 일대에서 재배한 메밀로 반죽하여 즉석에서 곱게 뽑은 국숫발을 가마솥 끓는 물에 삶아 만든 거무스름한 빛깔을 띤 국수이다.



1970년대 열어 3대째 성업

툭툭 끊기는 맛 "한그릇 더"

BTS소개 해외서도 큰 인기

한류 붐 타고 해외서도 절찬

본래 막국수는 강원도 메밀을 생산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조선시대 시제(時祭)를 비롯하여 각종 잔치에서 잔치국수로 불렸던 별식(別食)이자, 긴 겨울밤의 야식이나 간식 등으로 먹었던 음식이다.

재래식의 '조선간장'을 붓고, 그 위에 갓김치, 열무김치 또는 닭고기와 꿩고기를 곁들여 올려 먹었다. 막국수의 '막'은 '보편적'이고 '국수를 막 뽑아서 지금 바로 만든'이라는 의미로 막국수의 편리성과 대중성을 보여주는 접두어다.

춘천 메밀 막국수는 '함흥냉면'이나 '평양냉면'처럼 질긴 것이 아니라, 부드럽게 끊기면서도 입안에서 느껴지는 독특한 식감 때문에 별미로 여겨졌다고 한다. 6·25전쟁 이후부터 여름에 먹는 음식이 되었다. '쌈밥막국수'는 1970년대부터 사계절 음식으로 인기를 독차지, 3대(代)째 이어오면서 오늘에 이르렀다.

최근에는 방탄소년단(BTS) 정국이 '들기름 막국수'를 소개한 유튜브 영상이 폭발적인 인기를 끌면서 국내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는 메밀로 만든 막국

수가 지닌 담백함이 다른 재료와 잘 어우러져 다양한 막국수 요리를 쉽게 만들 수 있고, 매일 즐겁게 먹을 수 있는 건강식(健康食)이라는 이미지를 강하게 풍겨주기 때문이다.

막국수의 특별한 전설

'막국수'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한 때는 1934년 7월 13일, <매일신보> 4면이다. "평양의 명물 냉면을 먹고 1명 사망, 10명 중독, 원인은 상한 제육을 넣은 까닭"이란 제목 아래 "평양 부내 선교리에서 막국수(黑麵)를 먹고 8명이 중독 사건이 있다."는 가사였다. 이에 앞서 1930년대 춘천지역 약도(略圖)에 <方氏막국수집> 상호가 등장했다. 이와 함께 막국수에 대하여 "순메밀을 손으로 반죽한 후 나무틀로 눌러 뽑아 면발이 많이 물렸다. 그래서 올챙이국수처럼 뜨거운 육수와 합쳐 들이마시듯 먹었다."라는 설명을 곁들였다.

춘천막국수는 "1)지금 막 만들어 바로 먹어서, 2)겉절이 막 뽑아서, 3)겉기 때문에 감칠맛"이 있다. 막국수 전설도 동화적이다. 임진왜란 이후 국토가 황폐해져 연이어 흉년이 들었는데 기근으로 백성들이 초근목피로 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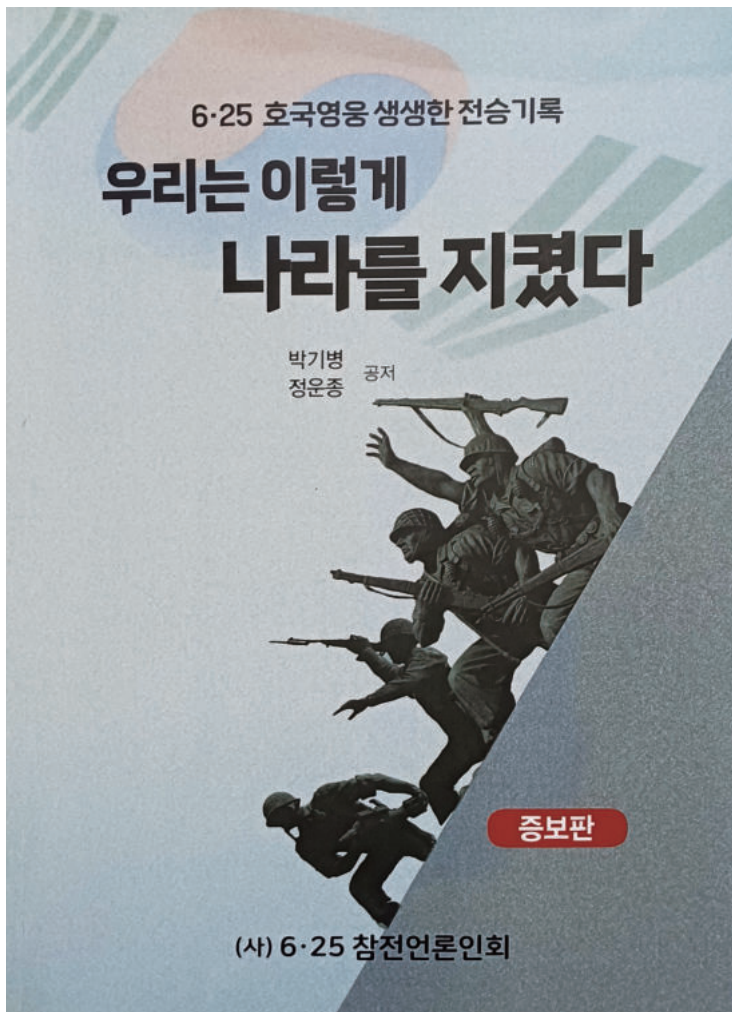
니를 연명하자, 나라에서 메밀 재배를 권장하여 호구책으로 삼았다고 알려졌다. 조선시대에는 "메밀로 반죽을 만들어 구멍을 뚫은 바가지에 넣고 눌러서 빠져 나오는 국숫발을 끓은 물에 받아 이를 굳혀 먹었다"고 전한다. 반면에 메밀을 반죽하여 먹던 메밀수제비가 발달하여 유래했다는 설도 있다.

춘천에는 백년 가게, 안심식당 '쌈밥막국수'가 전통 명가(名家)로 유명하다. 서울 서초동과 판교에 분점도 있다. 춘천의 대표 향토음식인 막국수를 테마로 한 '춘천막국수체험박물관'도 있다. 전시관과 체험관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1층 전시관은 메밀과 막국수의 유래와 종류, 음식 등 전반적인 것을 확인할 수 있고, 2층 체험관에서는 고객이 직접 메밀을 반죽하여 전통 방식의 막국수틀에서 막국수 면을 뽑아 체험한 막국수를 시식할 수 있다.

멀고 먼 옛날, 춘천 발산리 '쌈밥 평야'에 맥국(貊國)이 있었다. B.C 1100년~A.D 300년까지 1400여 년 동안 존속했던 고대국가, 5개의 궁궐이 있었던 쌈밥은 지금 논밭으로 변했다. 박기병 본회 고문·전 춘천·강릉 MBC 사장



‘6·25 참전 언론인’ 78명 나라사랑 박기병 등 27명 증언 저술...진중문고 채택도



박기병(본회 고문)

6·25 참전 언론인회는 위국협심 정신을 기리고 6·25를 모르는 세대들에게 6·25전쟁의 참의미를 일깨움과 동시에 이를 계기로 범국민적 안보경각심을 고취하여 호국보훈정신을 고양할 목적으로 참전언론인 35명, 종군기자 43명이 참여해 2010년 7월27일 탄생했다.

“우리는 이렇게 나라를 지켰다”라는 책을 저술 출판한 것은 6·25참전언론인들이 6·25전쟁 때 겪은 참전기와 당시의 안보상황을 심층적으로 분석·기술하여 누란의 위기에서 나라를 구한 참전용사들의 생사를 넘나든 전투경험 등 생생한 수기를 저술출판 함으로써 특히 6·25전쟁을 모르는 2세들에게 보훈 안보 의식을 고취하겠다는 것이 저술활동을 한 목적이다.

이 책은 총탄이 비오듯 쏟아지는 전장에서 피투성이가 된 몸을 이끌고 나라를 지킨 전쟁영웅들의 생생한 증언으로 생과 사의 갈림길에서 무엇이 진정한 애국심인지를 일깨워 주고 있다.

책 저술에 참가한 언론인은 27명이다. “우리는 이렇게 나라를 지켰다”라는 책은 국방부에서 진중문고로 2024년 2월 채택해 구입해 가기도

했다. 이 책에는 6·25 격전지와 6·25 최대격전지인 지평리전투, 6·25참전언론인회가 걸어온 길, 6·25참전 종군기자명단, 편집후기로 6·25는 끝나지 않았다는 내용이 수록돼 있다.☞

이성춘 회우, 66년만에 전국포장 4·19혁명 때 고려대 시위 주도 민주화 앞장

한국일보 이사·논설위원을 역임한 이성춘 회우가 지난 4월30일 정부로부터 ‘4·19 혁명 공로자’로 선정돼 증서와 건국포장을 받았다. 이 회우는 1960년 4·19 혁명 당시 3천여 고려대생들의 시위를 주도하는 등 민주헌정체제의 수호에 크게 기여했다고 국가보훈처는 밝혔다. 이 회우는 긴박했던 당시 상황을 이렇게 회상했다.

“이날 아침 일찍 시국토론회에 참여한 후 광화문, 경복궁, 경무대로 나아갔다. 당시 군중들은 부정선거 규탄만 했지, 이승만 대통령의 관저인 경무대 진출은 생각지도 못했다. 마주한 경찰들은 카빈총을 든 채 귀가를 종용했다. 10여분 동안 실랑이가 벌어졌고 경찰 10여명이 주먹과 총 개머리판으로 우리를 가격했다. 이 과정에서 4명이 사망하고 10여명이 다쳤다.

뒤이어 성난 군중과 경찰의 충돌로 급기야는 100여명이 목숨을 잃었다. 이날 낮 1시, 전국에 계엄령이 선포됐고, 탱크와 장갑차로 무장한 계엄군도 서울에 진입했다. 4월24일 전국의 교수들도 시위에 나섰다. 우리들은 백발이 성성한 은사님들을 보호가 위해 다시 시위 현장으로 나가야 했다. 그날 우리들은 학생회가 배포한 4·19 기념수건(타월)을 한 장씩 받았다.

나는 이 수건을 가보로 보관해오



이성춘(본회 회우)

가 학교측의 끈질긴 요구로 2017년 학교에 기증했다.”

4·19 민주혁명은 학생과 시민들이 합심해 헌법과 민주주의를 되살린 거사였다. 집권 자유당은 장기집권을 획책하기 위해 3월15일 최악의 불법, 부정선거를 저질렀다. 최초로 분노를 터뜨린 사람들은 마산 시민들. 수 천명의 시민들은 시청에 몰려가 “왜 투표용지를 주지 않느냐” “내 투표권을 누가 행사 했느냐” “내 투표지를 달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그 때도 투표용지가 문제였던 셈이다.

고려대는 거교적인 참여로 4·19 민주혁명의 거대한 횃불에 점화했다. 그러나 오랫동안 누구나 공인할 정확하고 객관적인 정사가 없어서 애를 태웠다.

그러던 중 시위 당시 사학과 1학년이었던 고 김정배 총장이 재임(제14대 1998년~2002년) 중 ‘4·18 의거 실록 편찬위원회’를 구성했고, 1년 반 동안 치열하게 사실관계를 밝혀내 오늘에 이르고 있다.☞



만보회

을왕리 해수욕장
모래밭 사뿐사뿐
서해 수평선 만끽

대한언론인회 만보회(회장 최귀조)는 지난 6월19일 서울에서 24km 떨어진 인천을 왕리 해수욕장에서 많은 회우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23차 걷기 행사를 가졌다.

을왕리 해수욕장은 초승달처럼 반원으로 생긴 백사장이 울창한 해송림과 붉은 해당화와 어우러져 빼어난 해안 풍경을 자랑하는 곳이다.

이날 초여름의 뜨거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회우들은 2시간여 고운 빛의 모래사장 을 거닐며 서해 바다의 다채로운 풍경을 즐기고, 정겨운 여름날의 추억을 쌓으며 오랜 만에 도심을 벗어나 힐링을 하였다.

참석자는 강두모, 김윤찬, 김조영, 박교원, 박종서, 설임윤, 안홍렬, 임상학, 장옥, 조희곤, 최귀조, 최영배, 황우연



6월12일 대한언론인회 2026년 제2차 이사회에서 이종세 회장(윗줄 가운데)이 개회인사를 하고 있다.

본회 내년 창립50돌 기념식 4월5일 개최키로

2026 제2차 이사회

대한언론인회 이종세 회장은 6월 12일 오전 11시 본회 회의실에서 2026년 제2차 이사회(제175차 이사회)를 개최했다. 이 회장은 회의 모두 발언에서 대한언론인회가 연말 총회, 내년 4월의 본회 창립50주년 기념식, 본회 50년사 간행, 회원수첩 발행문제 등 큰 행사들이 많고 운영비 등의 어려움이 많아 이사회를 소집했다고 말했다.

박종서 사무총장은 제1안건인 업무보고에서 작년 12월 27일 전 회장단으로부터 업무인계인수를 받을 때 기금 10억원, 박용윤 보도사진 인간대상 기금 1억원과 운영비 4700만원(통장)을 인계 받았다. 운영비에는 2025년 말에 사용한 총회비, 회장선거비 등이 포함되지 않은 금액이다(카드사용). 결국 4000만원이 안 되는 돈을 인계받은 것이다. 월 유지비는 신문 발행비 포함 1500만원 이상 든다. 광고 수입은 이종세 회장이 1개월에 1건씩 6월 현재 6건을 수

주 했다. 그 외엔 광고수입이 거의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제2안건은 대한언론인회 50년사를 발행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물었다. 참석이사 전원이 발행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 비용이 문제였다. 비용조달 문제에 대해 협찬, 광고비 등 여러가지 의견이 나왔으나 일단 제작은 시작하자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운영비를 포함한 창립50년사 편찬비 등 급한 비용을 기금에서 빌려 쓰기로 했다. 대한언론인회 창립기념일은 4월 7일이다. 기념식을 4월 7일에 하면 축하객 초청에 어려움이 있어 4월 5일 개최하기로 잠정 결정했다.

이날 이사회에는 이사 20명 중 14명이 참석했다. 위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참석한 14명 전원일치 찬성했다.

참석 이사는 이종세 회장을 비롯해 김화 한양인 조희곤 김사모 송종문 전의식 민경완 박종서 이재호 유한준 서옥식 이향숙 김두호 씨 등 14명이다.

본회 창립50년사 간행촉 열려

대한언론인회는 6월 16일 오후 2시 본회 회의실에서 대한언론인회 창립 50년사 간행위원회를 열고 이종세 회장을 간행위원장으로, 박기병 이병대 장석영 전회장 등 역대회장을 고문으로 선임했다.

이어 책임편집에 유한준 부회장, 책임간사 박종서 사무총장, 집필위원 김화 조희곤 정재필 전의식 전민조 이향숙 이재호 이규섭 유자호 심의표 서옥식 박종서 맹태균 이용 류종현 김두호 회우를 선임했다.

50년사 본문편제는 컬러화보, 권두논문, 제1편 총론, 제2편 발전과 중흥, 제3편 언론과 공익, 제4편 출판과 문화, 제5편 미래비전 및 부록으로 잠정 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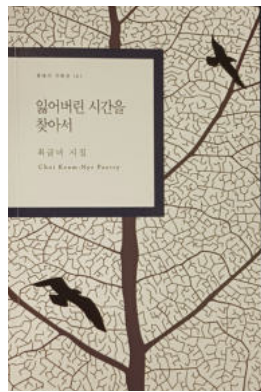


대한언론인회 창립50년사 간행위원회가 6월16일 대한언론인회사무실에서 열렸다.

확하고 있다. 4×6배판 700면으로 컬러화보 30면에 본문은 흑백으로, 원고마감은 9월 말, 7월 13일 3차 편집회의를 갖기로 했다.

회우가 낸 새책

분단...실향...개발...망실...그리고 증언
최금녀 시집,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



최금녀 시인은 기억이라는 매개를 통해 어린시절의 나를 타자화함으로써 실향의 체험과 분단의 역사 속에서 표상된 상실과 고통을 애도의 언어로 재구성했다. 나는 회고의 주체이기도 하지만 보편자아의 나의 자리를 완강

히 거부하는 몸이다. 같은 상처 속에 놓인 존재들을 가장 낮은 타자로 맞이하면서도 그들 곁에 끝끝내 서있으려는 증인의 몸이자 그 몸 위에 새겨진 역사를 윤리적 언어로 전환하려는 주체이다. 이 시집은 분단과 이산이라는 역사적 폭력이 한 인간의 신체와 기억 위에 종양처럼 새겨놓은 흔적들의 총체이며 그 흔적 안에는 역사가 강제한 결락들이 켜켜이 쌓여 있다. 최금녀는 단둥에서 자신의 지난했던 삶의 전면을 응시하며 기억 속에 살아있는 무수한 존재들에게 안부와 애도를, 그리고 그리움을 보낸다.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는 결국 한 개인의 생애사사를 통해 분단과 실향, 개발과 망실의 역사를 기억하면서 신화와 성서, 자연과 도시를 가로지르는 심문(心紋)을 형상화 한다. 상처 입은 존재들이 어떻게 어둠을 통과해 다시 빛의 언어를 되찾을 수 있는지를 끝까지 물으며 동시에 그 물음은 자체를 삶의 형식으로 견뎌낸 한 시인의 응축된 증언일수도 있다. 망각에 저항하는 마지막 목소리가 된다. 그 목소리는 고통을 호소하는데 그치지 않고 고통을 견디며 살아낸 이들의 존엄을 되살리고 아직 오지 않은 세대에게 그 기억을 건네는 윤리적 행위로 완성된다. 문학평론가 염선옥은 '최금녀의 시세계'를 이렇게 말했다.

이 시집은 결국 하나의 물음이 된다. 우리는 지금 무엇을 기억하고 있는가. 그리고 누구를 위해 증언할 것인가.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는 제1부 이쪽과 저쪽, 제2부 코크스, 제3부 월만한 물가인줄 알고, 제4부 늙은 원주민 등으로 되어 있다.

4×6판 160면 한국문연계 값 13,000원

월간 **대한언론** Korea Journal

- 발행인 겸 편집인 이 종 세
- 사무총장·상임이사 박 종 서
- 주 필 이 도 선
- 편집위원장·이사 이 재 호
- 편집책임 서 이 석
- 발행처 (우) 04520 서울 중구 세종대로 124 프레스센터 1405호
등록번호 서울 라 12013
- Email : kjc1405@kjclub.or.kr
- 홈페이지 : www.kjclub.or.kr
- ☎ 02)732-4797/4798
02)2001-7621
- Fax 02)730-1270

연회비 감사합니다

연회비 납부 : <2025.5.28 ~ 2026.6.23> <괄호 안은 연도, 단위 ; 원>

■ 연회비: 30,000원 ■ 평생회비: 300,000원

계좌 번호 : 농협 056-01-105628 예금주 대한언론인회

회 비

노재성(협찬금) 100,000 이종승(입회비) 300,000 서정혁(2026) 30,000 지정식(2027) 30,000

삼가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안평선 회우(전 동아방송 KBS PD) 6월 26일 별세 향년 90세
신대근 회우(전 MBC보도제작국장)부인상 6월13일

창춘양구

양구 9경 구경갈새가



4경 양구군립박수근미술관



3경 두타연



2경 한반도섬



1경 양구수목원



9경 광치계곡



5경 양구백자박물관



8경 상무릉 출렁다리



6경 편치볼



7경 양구 봉화산



양구에 있으면
10년이 젊어집니다

www.ygtour.kr

튼튼하게
탄탄하게
돈돈하게

튼튼 탄탄 돈돈 하게
K-스포츠의 미래를 준비합니다

K-스포츠 컨트롤 타워
올림픽회관

국가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K-스포츠 크리에이터

스포츠와 문화, 교육과 산업을 융합한 창의적인 K-스포츠로
KSPO가 대한민국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고 있습니다



몸과 마음을
튼튼하게



스포츠 사업을
탄탄하게



스포츠 재정을
돈돈하게

•스포츠 복지 •스포츠 산업 •올림픽 유산 •체육인재 육성/지원 •기금조성사업 •KSPO스포츠단

KSPO 국민체육진흥공단